

□ 일정표

일 정	프로그램
식전행사 13: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전시 디딤돌스쿨 재학생 / 캘리그래피, 종이접기 • 특별공연 디딤돌스쿨 재학생 / 합창, 댄스, 소감발표 • 인사말 유재호 (평택대학교 인흥장학재단 이사장)
개회식 14:00~14:20	<p style="text-align: right;">진행 : 전경숙 (평택대학교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시청 다문화가족센터 10주년 영상 • 개회사 유진이 (다문화가족센터 소장·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회장) • 환영사 이필재 (평택대학교 총장) • 축사1 공재광 (평택시장) • 축사2 원유철 (국회의원)·유의동 (국회의원) • 격려사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주제발표 14:20~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1. 중단연구 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과 정책과제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2.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형성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서덕희 (조선대학교 교수) • 발표 3. 다수와 소수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사회의 과제 -NGO 등 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휴식 15:20~15:35	<p style="text-align: center;">다과 및 음료</p>
사례발표 15:35~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1. 다문화가족 자녀 대안교육 프로그램 사례 허승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사무국장) • 발표 2.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 교육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허수경 (무지개청소년센터 초기지원팀 팀장) • 발표 3. NGO의 다문화 통합교육 우수사례 -다다리 배움터 사업을 중심으로- 서종남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센터장)
종합토론 16:20~16:50	<p style="text-align: right;">좌장 : 전경숙 (평택대학교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1. 정주영 (평택대학교 교수) • 토론 2. 강영배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 토론 3. 홍영균 (사회적협동조합 미래환경 이사장)
자유토론 16:5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응답
폐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 및 단체사진

목 차

개회식

- 개회사 / 유진이 (다문화가족센터 소장 ·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회장) i
- 환영사 / 이필재 (평택대학교 총장) ii
- 축사 / 공재광 (평택시장) iii
- 축사 / 원유철 (국회의원) vi
- 축사 / 유의동 (국회의원) v

1부 : 주제발표

- 중단연구 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과 정책과제 /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형성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 서덕희 (조선대학교 교수) 15
- 다수와 소수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사회의 과제 -NGO 등 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41

2부 : 사례발표

- 다문화가족 자녀 대안교육 프로그램 사례 / 허승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사무국장) 59
-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 교육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허수경 (무지개청소년센터 초기지원팀 팀장) 71
- NGO의 다문화 통합교육 우수사례 -다다리 배움터 사업을 중심으로- / 서종남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센터장) 87

토론

- 토론 1 / 정주영 (평택대학교 교수) 93
- 토론 2 / 강영배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97
- 토론 3 / 홍영균 (사회적협동조합 미래환경 이사장) 105

부록

- 평택대 다문화가족센터 소개 115
- 디딤돌스쿨 소개 125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가 2006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개소한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최 하에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와 함께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주변화 문제가 자녀세대에 재생산될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세대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여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와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 '이주민 자녀세대와 다문화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주민 자녀 대상별 정책개입의 방향과 구체적 대안 모색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모든 이주민 자녀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학술대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자녀세대에 재생산되는 것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정책개발에 대해 활기찬 논의의 장이 펼쳐져서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이론과 실무의 공동의 담론을 모색함으로써 다문화와 사회통합에 관한 우리사회의 지평을 확대하고 미래사회를 위해 학계와 각 분야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학술대회가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2일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소장
다문화아동청소년학회 회장
유진이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교에서 “이주민 자녀세대와 다문화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원유철 국회의원님, 유의동 국회의원님, 공재광 평택시장님,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 유재호 인흥장학재단 이사장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과 실무자분들, 지역의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인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센터에서는 디딤돌스쿨,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사회 다문화교육사업, 조기적응프로그램, 육군군종을 위한 다문화전문가 교육, 다문화 서포터즈, 다문화 관련 연구 및 세미나 등 문화적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다문화관련 연구·조사 및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2016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는 본교 다문화가족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민·관·학 협력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다문화가족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학술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주민 자녀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성가족부 한구건강가정진흥원과 다문화 아동청소년학회, 다문화가족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자녀들의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2일

평택대학교 총장
이 필 재

축 사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필재 평택대학교 총장님과 유진이 다문화가족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평택시민 누구나 이웃에 다문화가정을 쉽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다문화가정은 특별함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이라 생각합니다.

2016년 6월말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수가 최초로 2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인구대비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불협화음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협화음의 원인은 생각의 차이나 편견으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문화현상으로 발생하는 이질성을 극복하며, 글로벌 사회에서 다문화사회가 제공하는 다양성과 공존의 자원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의 수용과 융합이 필요하며 이는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다문화 학술세미나는 다문화사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의 사회통합을 위해 애쓰는 분들의 땀으로 준비되었으리라 봅니다.

특히, "이주민 자녀세대와 다문화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세미나가 다문화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차세대 첫걸음이 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평택시에서도 다문화 가족이 함께 성장 발전하며,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꿈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술세미나를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문화에 관심을 갖고 자리해주신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22일

평택시장
공 재 광

축 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평택갑 국회의원 원유철입니다.

글로벌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는 개방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개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여는 개방입니다.

인종과 문명을 가리지 않고 열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개방의 시대이기에 우리 모두 더욱 활짝 마음을 열고 다채롭게 더욱 새롭게 우리만의 새로운 문화로 창조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해마다 다문화가정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 또한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다문화를 포용하며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평택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 깊은 오늘 자리마련에 힘써주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가족여러분과 다문화화아동청소년학회 그리고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오가는 담화와 고견이 우리 평택을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도시이자 국가로 만드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으며,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2일

국회의원
원 유 철

축 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평택시를 국회의원 유의동입니다.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개관 10주년 맞이하여 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다문화가정들이 우리 평택에 잘 정착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헌신해 주고 계신 유진이 소장님을 비롯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학술대회 개최를 애써주신 이필재 평택대학교 총장님과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학술대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과 주제발표, 사례발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N 미래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대한민국에서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의 약 21%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UN 보고서 아니더라도 지난 2015년 다문화가족이 8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문화 차이 등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및 양육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자산과 언어 다양성의 배경을 지닌 다문화 청소년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보다 넓고 깊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부와 학계,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신 만큼 그동안 다문화가족센터의 사례들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문화정책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식견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저도 오늘 나온 여러분들의 고견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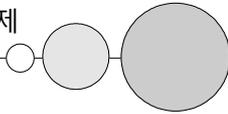
2016년 9월 22일

국회의원
유 의 동

2016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이주민 자녀세대와 다문화사회의 과제”

종단연구 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과 정책과제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종단연구 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과 정책과제

양 계 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국내 다문화청소년 현황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기준 현재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174만 1,919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1,327,916명) 대비 3.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행정자치부, 2015). 외국인주민에 포함되는 사람은 크게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나뉘는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의 동포 등이 포함되고, 한국국적취득자의 경우는 혼인 귀화자와 기타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포함된다. 즉, 한국에는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외국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으로 분류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총 207,693명인데, 행정자치부 통계에 포함된 외국인주민 자녀는 외국인부모의 자녀, 외국인과 한국인부모의 자녀, 원래 한국인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이혼 후 외국인과 재혼한 가정의 자녀 등 세 가지 범주가 포함되어 있다. 이 세 범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는 외국인과 한국인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고, 다음이 외국인부모의 자녀, 한국인부모의 자녀 순으로 되어 있다(행정자치부, 2015).

행정자치부에서 외국인주민의 자녀라고 칭하는 집단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라고 칭하고, 이들의 연령이 학령기에 달한 경우 교육부에서는 '다문화학생'으로 칭하며, 그 외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여 다문화청소년이라고 한다. 행정자치부에서 구분하는 세 가지 범주는 부모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다문화청소년 대상정책을 수행하는 부처에서는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이주노동자자녀'의 세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쪽이 외국출신이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경우를 말하고, 중도입국청소년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까지 성장한 후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으로 보통 부모가 재혼을 하여 입양의 형태로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이에 비해 이주노동자 자녀는 부모가 모두 이주노동자인 경우로 자녀도 한국국적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행정자치부는 19세 미만의 연령을 모두 포함하고 있

고, 교육부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약간 차이가 있고, 교육부의 경우 다문화학생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도입국청소년의 수는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한 경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집계되는데, 사실상 귀화를 신청하지 않고 부모와 동반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중도입국청소년이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연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 (단위: 명)

인원수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행정자치부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207,693
교육부(초·중·고재학생)	20,180	26,015	31,788	38,678	46,954	55,780	67,809	82,536

※ 출처: 양계민 외(2014), p. 25

<표 2> 2012~2014 다문화가족자녀의 연령별 분포 단위: 빈도(%)

연령 \ 부처 연도	행정자치부				교육부			
	2012	2013	2014	2015	2012	2013	2014	2015
6세 이하	97,078 (66.5)	116,696 (61.0)	121,370 (59.4)	117,877 (56.7)	-	-	-	-
7~12세 (초등학교)	33,969 (23.2)	45,156 (23.6)	49,929 (24.4)	56,108 (27.0)	33,792 (72.0)	39,430 (72.0)	48,298 (71.2)	60,283 (73.0)
13~15세 (중학교)	10,944 (7.5)	18,395 (9.6)	19,929 (9.6)	18,827 (9.1)	9,647 (20.5)	11,294 (20.2)	12,523 (18.5)	13,865 (16.8)
16~18세 (고등학교)	4,080 (2.8)	11,081 (5.8)	13,466 (6.6)	14,881 (7.2)	3,515 (7.5)	5,056 (9.1)	6,981 (10.3)	8,388 (10.2)
전체	146,071 (100)	191,328 (100)	204,204 (100)	207,693 (100)	46,954 (100)	55,780 (100)	67,802 (100)	82,536(100)

※ 출처: 양계민 외(2014), p. 25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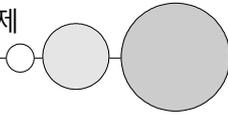
<표 3> 다문화가정 학생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국출생	29,303	8,196	2,541	40,040	32,831	9,174	3,809	45,814	41,575	10,325	5,598	57,498
중도입국	2,676	986	626	4,288	3,065	1,144	713	4,922	3,268	1,389	945	5,602
외국인자녀	1,813	465	348	2,626	3,534	976	534	5,044	3,454	811	441	4,706
계	33,792	9,647	3,515	46,954	39,430	11,294	5,056	55,780	48,297	12,525	6,984	67,806
비율	74.1%	19.7%	6.2%		70.7%	20.3%	9.0%		71.2%	18.5%	10.3%	

※ 출처: 교육부, 2015

2. 다문화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

1) 다문화청소년의 생활과 적응



(1) 학교생활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다문화청소년의 배경과 상관 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고,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다문화청소년의 부적응양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김갑성(200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언어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회성발달 및 학업습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학교와 담임과의 거리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성배(2005)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특히 국어과목이 취약하고, 문장이해력이 떨어지며,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 국어 외에도 사회문화적 배경이 기초가 되는 사회 과목에 대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고, 교우관계 형성이나 발표 등의 수업참여 정도에서도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오연경의 연구(2008)에서도 말하기는 일반 아이들과 다름없이 잘하는 데 반하여 받아쓰기나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도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언어를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모선희 외, 2008),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언어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취학 전까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지 않으나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자녀의 학습이해력 저하, 학교과제 수행시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고학년이 될수록 어휘력 부족, 이해력 부족 등으로 인한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이영주, 2007).

그러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라고 해서 모두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학교생활 부적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반대의 연구도 제시되고 있다. 정현영(2006)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보통 이상이며, 학습관련 영역에서의 적응도 보통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정일선(2006)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습성취도가 일반아동들과 차이가 없다고 응답한 교사비율이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 생활한지 오래 된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고 학업성취에도 문제가 없으며 어떤 경우는 국사와 국어를 가장 재미있는 과목으로 지적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고되기도 한다(정병호 외, 2007). 따라서 같은 다문화가정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속한 계층에 따라 학교생활과 적응의 양상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2) 다문화청소년의 언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는데, 연구결과들은 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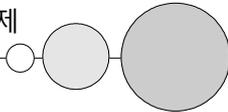
언어능력의 부진으로 귀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언어적 장벽 및 2개 국어 병용,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습부진, 정체성 혼란 등 여러 측면에서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거나(양순미 2007), 발달장애나 학습장애의 어려움을 보고하는 연구(이영주 2008), 언어학습과 정체성 형성, 대인관계 형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오성배, 2005), 독해력, 어휘력, 쓰기, 작문능력 등이 일반 학생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학습부진이 심하다는 연구(조영달 외, 2008)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과 마찬가지로 일반가정 자녀들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유승애(2009)의 연구에서는 만 4세에서 6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 유아를 일반가정 유아들의 어휘와 비교한 결과 3, 4세의 수용언어의 경우 일반 가정 유아에 비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세 집단에서는 일반가정 유아들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구문의미 이해력의 경우는 5세만 약간의 지체를 보여주었고 4세와 6세의 경우는 일반가정 유아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최연실(2006)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해력과 회상산출능력은 일반가정 아동들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나영(2009), 권미지와 석동일(2010), 안성우와 신영주(2008), 김은영(2007) 등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이 일반가정 자녀와 다르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박주희와 남지숙(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및 심리사회적 발달수준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언어지체의 문제가 다분히 환경적인 문제임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중언어 환경에서 두 나라 말을 배우는 아동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언어발달에 있어서 한 가지 언어를 배우는 아동에 비해 초기 언어습득 및 발달이 다소 늦은 특성이 있지만 나중에는 또래수준으로 따라잡는다는 것이다(황혜신, 황혜정, 2000).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언어능력이 떨어진다'고 쉽게 집단고정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초기 연구의 성과와 한계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초기 연구들의 성과를 먼저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상 어려움을 드러낸 결과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사회적으로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고, 실제 이러한 연구들 덕분에 많은 지원정책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초기 연구들은 다문화청소년집단이 사실상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근로자자녀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문화자녀'라는 용어로 뭉뚱그려서 다룬 결과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근로자자녀가 가진 특성을 국내출생자의 특성인 것처럼



럼 인식하게끔 하였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성장초기의 측정들이 대부분이어서 성장하면서 점차 일반한국가정 자녀들과의 격차가 감소하는 발달적 추이를 드러내지 못한 채 다문화청소년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결과 및 함의

지금까지 다문화청소년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전체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는 집단의 다양성과 일반청소년과의 비교에 주목을 하고 발달상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종단연구결과로 지금까지 도출된 결과 중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비(非)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결과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와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변인에서 다문화패널집단보다 일반패널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의 학업관련 영역과 교사관계에서 일반패널집단의 평균이 높았다. 그러나 학교생활 적응의 교우관계 영역과 삶의 만족도, 다문화수용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거주지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일반패널 집단이 다문화패널 집단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전체집단) 평균(표준편차)

구 분	다문화패널(N=1,503)	일반패널(N=4,399)	t
학교성적	3.41(.69)	3.72(.73)	-12.85***
성적에 대한 만족도	2.78(.77)	3.03(.74)	-10.12***
학교적응: 학습활동	2.92(.49)	2.98(.53)	-3.49***
학교적응: 교우관계	3.12(.45)	3.10(.47)	1.47
학교적응: 교사관계	3.06(.61)	3.12(.66)	-2.93**
삶의 만족도	3.24(.62)	3.26(.64)	-.91
다문화수용성	2.93(.57)	2.90(.64)	1.37
거주지 인식	3.02(.49)	3.08(.53)	-3.38***

** $p < .01$, *** $p < .001$

※ 출처: 양계민 외(2012), p. 144

그러나 다문화집단과 일반패널 집단을 각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각각 비교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차이를 보였다. 즉,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다문화수용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일반패널 청소년들이 다문화

패널 청소년들에 비해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학교생활 적응 중 교우관계는 다문화패널 청소년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중'인 집단을 비교한 결과 교성적과 성적에 대한 만족도, 키 등 세 가지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고 나머지 변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의 경우는 다문화패널집단의 다문화 수용성이 일반패널집단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가정의 소득수준별 다문화패널과 일반패널의 비교 평균(표준편차)

구 분	하			중			상		
	다문화	일반	t	다문화	일반	t	다문화	일반	t
학교성적	3.39(.68)	3.67(.74)	-12.36***	3.51(.74)	3.80(.72)	-3.44***	3.82(.74)	3.86(.68)	-.35
성적에 대한 만족도	2.76(.77)	3.01(.74)	-10.26***	2.88(.76)	3.11(.76)	-2.65**	3.12(.85)	3.07(.73)	.49
학교적응: 학습활동	2.91(.49)	2.96(.53)	-2.80**	3.00(.47)	3.00(.53)	-.03	3.08(.52)	3.08(.49)	.03
학교적응: 교우관계	3.12(.45)	3.08(.48)	2.09*	3.11(.49)	3.08(.48)	.49	3.29(.47)	3.16(.45)	2.05
학교적응: 교사관계	3.05(.60)	3.10(.66)	-2.44*	3.10(.62)	3.10(.66)	-.03	3.16(.66)	3.20(.65)	-.51
삶의 만족도	3.23(.61)	3.25(.63)	-1.11	3.30(.62)	3.24(.69)	.80	3.34(.64)	3.29(.61)	.63
다문화수용성	2.92(.56)	2.90(.64)	.87	2.97(.62)	2.91(.63)	.79	3.13(.61)	2.94(.64)	2.22*
거주지 인식	3.01(.48)	3.07(.53)	-3.25***	3.02(.54)	3.10(.52)	-1.46	3.19(.51)	3.11(.51)	1.16

*p<.05, **p<.01, ***p<.001

※ 출처: 양계민 외(2012), p. 147, 150, 152 수정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다문화패널집단과 일반패널집단의 차이는 전체집단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는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는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떨어지지 않으며 다문화수용성은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2) 다문화청소년 발달의 집단 내 다양성

다문화청소년 집단의 다양성을 보여준 연구결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의 다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3년간(2011년-2013년)의 종단자료를 비교한 결과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네 가지 집단의 특성이 도출되었다. 즉, 첫 번째 집단은 평균값이 처음에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지니고 있는 집단이고, 두 번째 집단은 지속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며, 세 번째 집단은 처음엔 낮았다가 점차 증가하는 집단이고, 마지막 네 번째 집단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지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네 가지 발달특성집단별 학교적응의 년도별 변화추이(양계민 외, 2013)

이 네 가지 집단별로 다양한 영역의 적응양상을 비교한 결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HA 집단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달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이 점차 증가하는 IM집단, 그리고 점차 낮아지는 DE 집단, 그리고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인 LA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모두 같은 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고, 적응의 수준은 다양하며, 다문화청소년이 부적응청소년이라는 판단을 선부르게 해서는 안 될 것을 생각된다.

3) 다문화청소년의 종단적 발달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4년간 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산출되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의 증가와 부정적인 측면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생활적응 중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교사 및 친구지지, 신체만족도나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시에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고, 학교에 선생님께서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거나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반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학업과 관련된 부분이 뒤쳐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반대로 감소추세에 있는 내용은 부모의 방임적 태도와 집단괴롭힘으로 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부분 중 학습활동, 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등 학업성취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 한국인 정체성,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중문화수용태도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나 중학교에 입학한 것이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상 전환기이고 이러한 요인이 학업성취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시기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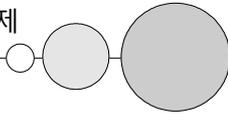
<표 6> 4년간 종단변화 추이 결과 요약

구분	영역	변인
증가추세	가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소득수준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적응: 교사관계, 교우관계 ▪ 학업적 포부 ▪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는 반응 ▪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음
	심리·사회적응 및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도움을 주는 어른 유무 ▪ 교사지지, 친구지지 ▪ 신체만족도,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 성취동기 ▪ 다문화수용성 ▪ 우울, 사회적 위축 ▪ 이중정체성(한국사람이기도 하고 부모나라 사람이기도 함)
	신체발달 및 건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 몸무게 ▪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감소추세	가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양육태도: 방임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변화없음	가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에 대한 자랑스러움 ▪ 부모양육태도: 감독
	심리·사회적응 및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중학교 시기의 감소	가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
	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적응: 학습활동 ▪ 학교성적 ▪ 성적에 대한 만족도
	심리·사회적응 및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 ▪ 한국인 정체성 ▪ 문화적응스트레스 ▪ 이중문화수용태도

※ 출처: 양계민 외(2014), 146

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함의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함의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은 배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모두가 다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라는 고정관념적 인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즉, 집단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집단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고, 정책도 세분화 되어 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다문화집단의 특성은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노동자자녀 집단마다 특성이 다르고, 다문화집단 내에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특성에 따라 청소년의 발달양상은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이며,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정과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셋째는 다문화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고, 일반청소년들의 발달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단연구의 함의를 다음에서 정책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4.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함의

국내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다양한 측면이 있으나, 본 연구로부터 제안할 수 있는 방향만을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선별적 지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우선 다문화청소년 대상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면서 다문화 학생의 내부적 다양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정 학생이면 모두를 포괄하는 방식의 지원을 하다보니 '다문화학생', '다문화청소년'을 다른 학생들과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의도하지 않는 낙인 효과를 가져왔다. 다문화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특별학급'의 설치,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 다문화청소년 대상 캠프 등 다문화학생 학생 지원방식이 정책의도와는 다르게 다문화청소년을 비(非)다문화청소년과 구별, 구분하거나 다문화청소년은 무엇인가를 지원받아야 할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을 낳게 하기도 하였다(양계민 외, 2013).

다문화청소년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고, 그래야할 필요성도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할 때,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강화되지 않도록 기술적 정책집행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더더욱 조심하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2) 일률적이고 부적절한 프로그램 지양

다문화청소년의 다양성에 근거해 볼 때, 다문화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내용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유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이중언어 등 언어교육에 집중되어 있거나 한국의 역사체험활동 등을 다문화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중 이중언어의 경우, 명목상 이중언어이고,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파견되느냐에 따라 배우는 언어가 달라지는 일이 많아, 어머니 나라의 말을 배우다기 보다는 그냥 제 2외국어를 배우는 상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다문화청소년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태어난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에게 다문화라는 이유로 한국어교실에 가서 앉아있도록 하는 부적절한 프로그램이 청소년과 부모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에게만 이중언어를 가르치기 보다는 일반 비(非)다문화청소년들도 모두 함께 특정한 제 2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라는 이유로 이중언어를 배우라고 권하거나 한국어교실에 가라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양계민 외, 2013).

3) 선택과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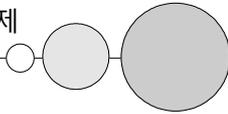
세 번째로는 모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일률적 지원보다는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세심하고 효율적 정책집행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역차별의 문제 등에 대한 대안으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다문화청소년의 주변의 역량강화 및 다문화친화적 분위기 조성

다문화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있어서 청소년 자신의 역량강화도 중요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면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교사, 친구 등 주변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지금까지는 다문화청소년 당사자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역량강화를 고려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된다. 즉, 부모교육의 강화와 교사역량강화 뿐 아니라 학급전체, 나아가 학교환경과 지역사회 전체의 다문화친화적이고 다문화민감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계획 발표". 2015년 3월 17일자 교육부 보도자료.
- 권미지, 석동일(2010).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 간 음운처리에 관한 메타언어능력의 비교 분석. 언어치료연구, 19(1), 1-23.
- 김갑성(2008).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58-95.
- 김나영(2009).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법형태소 사용 특성.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명사 및 동사 이름대기.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모선희, 이인희, 인선행, 김성운 (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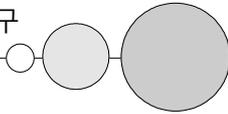
남발전연구원.

- 박주희, 남지숙(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21(2), 안성우, 신영주(2008). 저소득층 일반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음운인식능력 비교 연구: 음절과 음소 측면. 언어치료연구, 17(4), 81-94.
- 송효진, 김소영, 안소영, 김연재(2015).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5.
- 양계민, 김승경, 김윤영 (20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2-R08.
- 양계민, 박주희(20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3-R12.
-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2014).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4-R16.
- 양순미(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59-576.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연경 (2008). 다문화가족 상담을 위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역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승애(2009). 4, 5, 6세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발달실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 이영주(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3(1), 79-101,
- 정병호, 양계민, 이향규, 임후남, 황순택(2007). 새터민 청소년 :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연구. 수원 : 경기도교육청
- 정일선(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정현영(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영달, 윤희원, 김순희 (2008). 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교재 저술 : 다문화교육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 최연실(2006). 도시 국제결혼가정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이야기 능력 비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자치부 (2015).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서울: 안전행정부.
- 황혜신, 황혜정(2000). 이중언어(한국-영어)를 하는 아동의 언어발달능력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69-79.

2016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이주민 자녀세대와 다문화사회의 과제”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형성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서덕희 (조선대학교 교수)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형성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서 덕 희

조선대학교 교수

1. 문제제기

진로가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지는 꽤 되었다. 이미 오래 전에 진로활동이 자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과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로교육이 중학교의 필수교과목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아예 '자유학기제'라는 이름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의미와 효과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관계에 일차적 연구 관심을 두고 있는 교육인류학과 교육사회학 내에서 진로가 중요한 연구의 초점이 된 적이 없다.

그 까닭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진로가 오랫동안 학문적으로는 심리학의 영역에서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상담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진로에 관한 이론을 일괄해 보면, 이제까지 진로이론은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중학생들이 진로교육시간에 주로 참여하게 되는 홀랜드 검사가 대표적인데, 개인의 특성(traits)과 인성(personality)을 확인하는 문항 검사를 통해 인성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에 맞는 직업군들을 소개해주는 것이 이 직업적성검사의 특징이다. 둘째로, 진로가 평생에 걸쳐 형성되는 교육적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진학과 직업 선택의 차원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진학과 취업이 이루어지는 특정 시기에 상담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되어왔다.

위와 같은 교육 영역에서의 진로와 관련된 학문과 실천적 경향은 진로선택은 개인의 문제로 개인주의와 자율성, 관련 비용이 항상 지불 가능하다는 풍요성,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구조가 열려 있다고 보는 능력주의에 대한 신념, 진로발달의 한 경로를 통해 꾸준히 성장한다고 보는 선형성, 항상성, 합리성을 가정하고 있다(황매향·선혜연, 2013: 3518). 이러한 가정은 결국 취약집단이 진로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게 하는 전형적인 "실패자를 비난하는(blame the victim)" 결과를 낳게 된다. 그에 관한 지원 역시 기껏해야 개인적 차원에서 진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를 격려하는 방식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제한된다. 즉, 최근의 "희망고문"이라는 용어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사회구조적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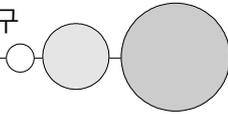
을 도외시하는 개인 차원의 상담에 그치게 한다.

그러나 진로가 특정 시기에만 주목해야 하는 개인적 과업이 아니라는 사실이 진로에 관한 가장 오랜 연구전통을 지닌 북미권 연구자들에 의하여 점차 밝혀지면서 진로에 대한 생애적 관점, 그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초기사회화, 자원에 대한 접근성 등 진로와 관련하여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포부수준과 진로의식, 준비행동 등 자발적 의지(volition), 전공이나 직업 선택, 일터에서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초기사회화와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 등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Heppner & Jung, 2013). 이런 맥락에서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는 개인이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만 하며 그런 점에서 소수 사례에 대한 질적인 종단 연구의 형식을 띠 필요가 있다(황매향·선혜연, 2013: 3529).

특히 이주배경청소년은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사회화, 자원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포부수준과 진로의식, 정보 등 여러 면에서 선주민 청소년들과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게다가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이주배경 외에도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의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기 어렵다. 이주배경청소년들 중 중도입국청소년은 중도에 입국했기 때문에 청소년 당사자가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갈등하고 재사회화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로를 찾아나가는 어려움은 명약관화하다(오성배·서덕희, 2012, 서덕희 외, 2015). 차이는 있지만 이제 중등교육을 받고 대학 진학을 시작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에게서도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정도와 학력, 그리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경우 어려움의 정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서덕희, 2015).

중도입국청소년이 아닌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그 자녀의 성장과정에는 '다문화'보다는 '계층'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양계민 외, 2012). 실지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추적한 종단연구(양계민 외, 2012) 결과를 보면, 서덕희(2015)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학력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보다 대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감독한다거나, 방임이 적다거나 학교성적이 높으며 성취동기,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의지지, 삶의 만족도 등이 모두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대학원졸업의 경우 국가정체성이 다른 어떤 경우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수준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진로를 이해하는 데에는 일반 취약청소년 진로 관련 연구가 선행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 동향을 확인한 황매향·선혜연(2013)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빈곤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에 비하여 진로성숙도나 진로태도성숙도가 낮다거나 진로결정수준에 있어서도 유의미하게 낮다고 한다. 그러나 빈곤청



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장벽 정도가 낮아지고 진로장벽 정도가 낮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황매향·선혜연, 2013: 3524에서 재인용). 또한 개인의 내적·외적 환경 속의 사건과 상황에 대한 주관적 반응으로서의 진로장벽 관련 질적 연구의 결과로 보면, 가령 학업중단청소년은 학습 및 시간관리, 정보수집, 합리적 의사결정 등 인지적인 진로장벽뿐만 아니라 목적의식 부족, 자신감 부족, 정서적지지 부족 등 정서적인 차원의 진로장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근영, 2012; 김지혜, 2008: 황매향·선혜연, 2013: 3526)

그러나 위와 같이 비취약청소년과의 비교연구는 취약청소년 그 자체의 진로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차원을 법, 전통, 성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서덕희(2016)의 연구에 따르면 한 인간이 자신의 진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조건은 차원에 따라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이 차원은 그들의 진로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다.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의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선주민청소년과 달리 그 성장과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학력에 비하여 어머니의 학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학력과 사회경제적 위치 등은 그들의 '성향'이라는 문화적 차원으로, 어머니의 한국사회 정착 정도와 자녀 교육지원 방식은 한국사회의 지배적 학부모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전통'이라는 문화적 차원으로, 그들에게 작동하는 교육시스템 운영 방식은 '법'이라는 문화적 차원에서 맥락으로 작동한다.

진로에 대한 공적이며 보편적인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학업성취도가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은 청소년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소수자의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의미 있고 유효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행연구(황매향·선혜연, 2013: 3528)가 강조하고 있듯이 그들의 초기 사회화 과정이 그들이 놓인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성향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그들의 문화적 전통의 차이와 그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적 지원의 차이 등도 그들의 진로 형성 과정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두 명을 사례로 하여 그들의 진로형성의 과정을 그들이 놓인 생활세계, 즉 문화적 차원이라는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진로 형성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화적 차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그들의 건강한 진로 형성을 위해 어떤 지원이 요구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진로 형성의 과정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이 연구는 소수 사례이지만 5-6년에 걸친 종단적 사례 연구를 통해 이들의 진로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차원을 그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내 봄으로써 진로 지원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과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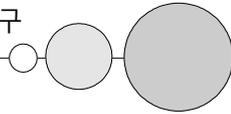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두 명의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형성의 과정을 종단적으로 접근하는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아래에서는 생애사 연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이 연구에 참여한 두 청소년을 어떻게 만나 어떻게 자료를 구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였는지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1) 사례 연구(case study)

이 연구는 두 청소년의 삶을 진로 형성에 초점을 두어 종단적으로 접근한 사례 연구이다. 즉 두 청소년의 삶을 종단적으로 쫓아가면서 자료를 구성함으로써 진로가 형성되는 과정을 사례별로 총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사례 연구는 질적 연구 중 다른 어떤 방법적 전통 보다도 사례 자체의 총체성과 복잡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진로 형성' 과정이라는 서로 다른 변인들이 복잡하면서도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연구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사례 연구 중에서도 도구적 사례 연구의 특성을 띠고 있다. 사례 연구는 Yin()에 따르면, 사례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그 자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례 연구와 주제 혹은 쟁점을 중심으로 사례를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도구적 사례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볼 사례는 이상적 사례나 부정적 사례 등 전체 모집단에서 사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진로형성 과정이 부모의 학력과 사회적·문화적 자본,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그리고 학교와 사회의 교육적 지원 등으로 인하여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례 연구에서는 사례 선택의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선택된 두 사례는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출신의 여자 청소년,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위치,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머니의 출신국과 학력, 한국에의 정착 정도를 드러내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학교교육 내에서 교육적 지원 방식과 참여 여부, 학교 밖 지원 방식과 참여 여부 등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진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형성 과정에 작동하는 복잡성과 역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2) 연구참여자와 자료구성 과정

이 연구에 참여한 사례로서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은 '순지'와 '아라'이다. 순지와 아라는 각각 일본과 중국에서 온 어머니를 두고 있으며 순지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살 취업준비생이고 아라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으로 곧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 둘은 모두 K광역시의 LH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해 있다. 또한 순지의 경우 세 자매의 첫째이고 아라의 경우 두 자매의 첫째로 가정 내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위치가 유사한 점이 많다.

차이가 있다면 순지의 어머니는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건물의 화장실 청소용역을 맡아 오전에만 일을 하고 있지만 아라의 어머니는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갖고 있었고 자활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에서 전문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하여 현재 보육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출신배경으로 인한 한국어 능력이나 직업의 종류, 한국에서 정착한 과정과 결과가 다르며 이 차이는 자녀들의 진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들과의 만남은 먼저 2009년부터 K지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그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다. 두 청소년을 직접 만나 면담을 진행한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순지의 경우 2011년부터 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할 수 있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 년 한두 차례 만나 자료를 구성해 나갔다. 특히 순지의 경우 연구자가 재직한 학교의 학과에서 자매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연구참여자와의 래포 형성과 함께 심층적인 인터뷰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아라의 경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어머니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장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본격적으로 한 차례씩 만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분석과 해석

위와 같은 자료구성과정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Glaser & Strass(1967)의 분석방법을 따라 코딩을 진행하였다. 일차적으로 진로형성이라는 포괄적 주제에 맞추어 개방적 코딩(open coding)을 진행하였다. 즉, 여러 차례 인터뷰 자료를 읽으면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부호화하며 분류하였다. 둘째로 분류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축을 찾아나가는 축 코딩(axial coding)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중요한 축으로 드러난 것이 초등학교를 포함한 초기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교육지원 방식과 태도, 둘째 고등학교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교 시절 부모의 교육지원의 방식과 태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사회문화적 배경, 셋째 현재의 진로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중고등학교 때 학교 안팎에서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지원과 활동, 넷째, 진로와 그 맥락에 대한 청소년 본인의 태도 등이었다. 이러한 축 코딩 후에 마지막으로 각 축에서 내용이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3장에서는 두 연구참여자의 진로 형성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후 최대한 삶의 맥락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위의 네 가지 축으로 분석하여 기술한 결과에 근거하여 4장에서는 그것이 한국 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들의 진로형성을 맥락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했다. 특히 '성향', '전통', '법'의 문화적 세 차원의 틀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위치, 그리고 형제간 서열에 따라 형성되는 '성향', 어머니의 학교교육과 교육에 대한 관점과 지원방식의 '전통', 그리고 그들이 속한 교육시스템이라는 '법'차원에서의 진로지원 방식 등을 구분하여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진로형성 과정을 최대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5장 결론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함의에 근거하여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더 나아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진로 지원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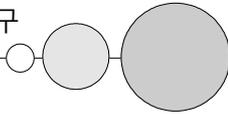
3. 두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 형성 과정

1) 순지 이야기

순지의 어머니는 1996년 일본에서 통일교를 통해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만 해도 당시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통일교를 통해서 이주한 일본여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순지의 어머니 역시 일본 한 농촌지역에서 고등학교 까지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잠시 하다가 한국으로 이주를 오게 되었다.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여 낳은 첫째 딸이 바로 순지였고 순지는 이제 K광역시의 한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의 청소년이 되었다.

(1)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말수가 적은 첫째

세 자매의 첫째로 자란 순지는 다른 두 동생에 비하여 지금도 한국어가 느리고 어눌한 편이다. 순지의 어머니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형성되기 이전 한국으로 이주를 하였고 다니는 통일교 교회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전부였다. 순지 어머니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지만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하게 된 일이 오전에 시간을 내서 큰 건물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라 한국어 실력이 느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기고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어린 세 딸을 두고 한국어를 배우러 다니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국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주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한국어가 서툴다. 게다가 순지는 어머니가 한국어를 막 배우기 시작하던 때 태어난 데다 순지의 어머니는 일본어를 아이들에게 거의 하지 않았다. 가정적이기는 하지만 말수가 적고 일 때문에 늦게 귀가하는 아버지를 제외하고 순지는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셈이다.

순지의 어머니는 부족한 살림에도 한국어는 아이들에게 사회 생활의 기본적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학습지를 꾸준히 하도록 하였다. 순지는 늘 학교 수업시간에 태도가 바르고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고학년이 되면서 교사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할 정도로 성실하였지만 성적이 높지는 않았다. 국어나 수학도 쉽지 않았지만 영어는 처음부터 쫓아가기 힘들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학교 밖에서 학원이나 학습지나 다른 경로를 통해 영어실력을 쌓고 있었지만 순지 어머니는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라고 알려준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어공부를 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순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그리 잘 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말이 없고 착했던 순지의 초등학교 생활은 다른 두 자매에 비하여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조용하고 착하지만 말이 느리고 말수가 적은 순지를 반 친구들과 동네 친구들은 “만만하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같은 반 작은 남자아이가 순지를 “다다다 하면서 때린” 적도 있었다. 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 “큰 애니깐 작은 애들을 조금 돌봐 주어야” 하고 학습지교사와의 약속이나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해서 친구들과 잘 놀지 못해 그게 빌미가 되어 “괴롭힘”을 당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때문만은 아니었다.

5학년 때는 학교에서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로 순지를 “만만하게” 보고 아이들이 괴롭힌 적도 있었다. 약 한 달 정도 순지는 이 아이들의 괴롭힘을 받았지만 어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그것도 어머니 나라 때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순지가 자신에게 걸려온 친구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는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물어보았고 순지는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빨리 가야해서 친구들과 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 사이 순지는 “학교에 죽어도 안 가고 싶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속상”하고 힘들었다.

(2) 유아교사, 사회복지사도 되고 싶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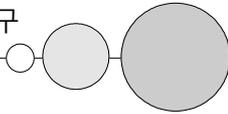
순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영어가 “따라가기 너무 힘들었다”. 다른 친구들은 “애기 때도 배우고, 다 학원 보내니까” 잘 하는 것 같았다. 순지어머니는 나중에 학원을 보냈다고 해도 “또래 친구들이랑 못할 것” 같았다. “이미 늦어, 너무 차이

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중학교 때에도 순지는 영어와 수학은 학습지도 안 하였고 국어만 하였다. "국어 못하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애기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때는 점수가 "괜찮았"다. 그러나 중학교 올라가니 국어도 어려웠다. 잘 받으면 70점을 받는 정도였고 영어는 그보다 더 낮게 나왔다. 순지어머니는 "인터넷으로 다 있는데""혼자서도 꾸준히 날마다 본인이 하면" 되는데 "애기가 그렇게 마음을 안 먹어서"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 3 때 대학생들의 멘토링을 경험하면서 순지와 순지어머니의 생각은 달라졌다. 순지어머니는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에도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고 가정에서 공부하도록 하였다. 가까운 곳에 센터가 없어서 멀리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 두 차례의 대학생 멘토링은 하게 되었다. 한 번은 대학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한번은 학교에서 소개해 준 멘토링을 통해서였다. 멘토링을 하면서는 순지는 처음으로 "영어가 재밌네"라고 했고, 성적도 올랐다. 대학생 개인 멘토링을 받고 나서 순지어머니는 "일대일"로 지도를 하면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고등학교 때 배우야 할 것을 중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때 배우야 할 것을 초등학교 5, 6학년에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한다는 것은 "진짜 힘들었던 것" 같다는 것 역시 알았다.

순지어머니는 "뭔가 한 가지만 자신있게 그런 거라도 있다면 자신감 가지고 어디 가도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되면 애기들도 힘들게 살 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세 자녀가 모두 디자인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도 "그냥 그리는 거"를 좋아했듯이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순지어머니는 "예술 쪽에는 그런 거 없으면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애기 셋 잘 키우려면 하면 진짜 부모 힘이 필요한 거 같다"는 말을 반복했다. "일을 많이 하고 돈 더 벌면 좋았는데"는 말도 했다. 그러나 "저 체력으로 그렇게 하루 8시간 나가서 회사에서 일하면 좀 힘들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 같았다. "지금도 복잡한데 그거를 그렇게나 어떻게 하나"는 생각에 오전시간에만 일을 했다. "차나 가지고 다니면 몰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애기 학원 못 보내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 순지는 "딱히 학원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순지어머니는 "엄마가 돈 많이 벌면 학원 가고 싶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순지어머니는 "애들이 원하면 대학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부모도 어떤 무리도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순지에게는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대학교까지 안 가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지의 말은 달랐다. 중 3 때 순지는 "유치원 교사도 해보고 싶었고",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더 하고 싶다"고 했다. "조금 힘들게 사는 나라들에 가서 거기서 많이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TV 다큐멘타리를 보면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면서 "애네들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지의 그런 바람은 일단 고등학교 진학 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순지는 전문계 고등학교를 택하였다.



(3) 알아서 해야 해요.

순지는 중 3 때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때 인문계를 가지 않겠다고 했다. “밤 늦게까지 계속 공부하는 것이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K광역시에 있는 한 여자 전문계 고등학교의 글로벌 디자인 전공을 택하여 진학하였다. 원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좀 점수가 부족”하고 성적에 관한 “정보가 잘 못되어서” 그 학교와 그 전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원래는 제과제빵 전공이 있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고 그 전공이 있는 인근의 세 개의 학교 중에 한 학교에는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안 좋아가지고”, 본인 성적으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은 지도도 잘 해주시고 걱정해주셨지만 다른 선생님에게서 “그 외로 얻는 정보가 잘못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제일로 가고 싶은 자리”는 못 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멀지 않은 현재의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순지 어머니는 “진짜 싫어서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니”라며 위로했고 제과제빵은 나중에 “그냥 학원을 가라”고 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생활도 그리 다르지 않았다. 정규수업은 7교시까지지만 방과후학교까지 포함하여 하루에 10교시 수업을 듣는다고 했다. 방과후에서는 주로 자격증반을 운영했고 순지는 컴퓨터 워드 자격증반을 다녔다. 그래서 집에 빨리 오면 7시고 희망자만 하는 “야자”라도 할라치면 10시에 끝난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학교 공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순지 어머니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이상 학교수업을 따라가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수업도 잘 듣고 태도도 좋지만 교육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열심히 해도 그만큼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보았다.

순지는 중학교 때에 비하여 친구들이 좋게 말하면 “활기차”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시끄럽기”도 하다고 했다. 이 고등학교에는 나쁘면 내신 “60-70%”에 해당하는 아이들도 오지만 “좋은 애들”도 많이 온다고 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잡고” 지도를 해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소수였다. “그 아래 있는 아이들은 그냥 버리듯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순지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전체 학생 중 40%는 대학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진학하는 아이들도, 순지처럼 “중간”에 해당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출석률이나 성적이 모두 안 좋은 경우에도 “악바리 근성”이 있어 보이는 아이들은 대기업 생산직에서 뽑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힘든 일 시켜도 버티겠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자기는 “운 좋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도 많이 하고” 괜찮았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잘하는 반만 신경 썼다”.

3학년 2학기에는 이미 취업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모두 실습수업을 해야 하는데 실습할 업체를 학교가 아니라 학생이 개별적으로 섭외를 하고 실습 요청을 해야 했다. 순지는 자신이 가고 싶었던 셋별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실습기관을 알아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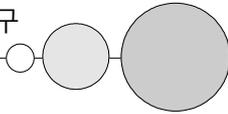
는 데 반해 자신의 학교만 개인적으로 알아보아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순지의 경우 어머니도 아는 사람이 없고 결국 아버지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사업하시는 분”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가 않았다. 순지는 “아직 꿈이 없는 애들도 많고 진학할 애들은 엄청 막막해서 그냥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애들도 있다”고 했다. 결국 순지는 자신의 전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휴대폰대리점에서 실습을 받게 되었고 그 실습마저도 형식적이었다.

순지도 3학년 2학기에 취업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중소기업도 전보다 더 “늦게 들어오고” “양도 많이 없다”고 했다. 선배들은 취업이 잘 되는 편이었는데 순지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순지도 개인적으로 “보석감정”에 관심이 있어서 보석 세공하는 쪽의 취업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회사 상태도 좋지 않고”, “몸 상태도 별로 좋은 편도 아닌데 거기 계속 있으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만두었다. 노동환경이 열악했던 것이다. 학교 다니면서 컴퓨터 그래픽 실무사 자격증을 따서 디자인 회사 추천이 들어와 면접을 보러 갔지만 잘 되지 않았다. 결국 학교에서 추천 받아 면접을 본 두 군데 어느 곳에도 취업할 수 없었다.

순지는 졸업하기 전 일단 자신이 하고 싶은 “디자인” 쪽을 계속 알아보고 싶어 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보석디자인을 하려면 서울에 가야 배울 수 있고 관련 기본 자격증을 따야 했다. 학원에서 1-2년은 배워야 하고 한 달에 30만원씩 내야 하는데 부모가 “그거 내는 거 힘드니까” “그래도 하고 싶으면 나중에 자기가 돈 벌어서” 하겠다고 했다. 순지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밀어주지 못하니까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밖에 안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진짜 가고 싶으면 일단 자기가 돈 벌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안하고 답답하지만 하겠다는 길을 막지는 않고 믿어주는 것밖에 못한다면 자식이면 “뭘 해도 예쁘다 하고” “진짜 정성껏 하는” “한국 엄마들”하고 비교하면 자신은 “냉정 같은 엄마 같기도” 하다고 했다. 아이들이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줬어” 이런 말을 할까봐 때론 걱정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순지어머니는 국가에서 실업계 가는 학생들 수업료는 면제해주지만 다른 부분은 여전히 내야한다는 점, 순지처럼 관련된 직업교육을 받고 싶다면 매달 30만원씩 2년씩이나 내야 하는 그런 교육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

(4)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2016년 순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고 싶은 건 많으니까”라며 위로했지만 고등학교 2-3학년 때가 “제일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기”였다고 했다. 졸업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것은 “재미” 있었다. 그러나 만약 선생님이 추천해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다른 데 또 알아봤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게 맞나?”라는 생각을 종종 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은순이 반의 경우도 전공에 맞추어 취직을 한 경우는 36명 중에 2-3명



있을까 말까이고 취업을 한 경우도 거의 “사무직”이었다. 전공과 관련된 자리가 있다고 해도 “생각보다 애들이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고, 주로 병원 원무과나 회계사, 법무사, 보험회사에서 서류 만드는 일을 하는 사무직에 취업했다. 그리고 순지가 전공한 학과 70명 중에서 약 20명이 “만만한 대학”이거나 자신이 하고 싶었던 학과에 진학하였는데 항공과, 미용과, 사회복지과나 유아교육과 등이었다.

순지는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여 지금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네 시간씩 배운다. 보석세공과 관련한 직업교육을 알아봤지만 없어서 바리스타를 택하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도 나중에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는 보석보다는 칼이나 가위 같은 것을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다. 아름다운 디자인만이 아니라 편하게 쓸 수 있는 좋은 칼이나 가위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래도 지금 배우는 바리스타도 재미있다. 취업이 되면 “나라에서 돈을 줘서 그냥 받으면 되고, 취업 못하면 취업할 때까지 계속 알아봐야” 하지만, 순지는 취업이 되어도 제과제빵 배우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순지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일을 배우고 취업도 보장되어 있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바리스타 학원에서 순지는 아주머니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 아주머니들은 대체로 부유하게 살면서 “취미로” 배우는 분들이었고 모두 대학교를 나오셨다. 순지에게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취업할 생각을 하는 게 참 대견스럽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대학교 가서 위대한 사람이 되야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순지는 왜 대학을 가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친구 어머니들을 보면 순지는 아직도 어른들 중에는 “무조건 대학교 가야 돼”라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꿈이 없는 애들은 거의 다 부모님께서 대학교 가라. 아무거나라도 괜찮으니까 가라”고 한다고 했다. 이렇게 “사회 주변 시선”을 보면 “가치관이 센 사람은 대학교 안 나오면 좀 낮게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 걱정될 때도 있다.

순지어머니는 지금 자신은 일본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이 직업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여전히 “깨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TV에서 의사들이 자신처럼 청소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순지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소중하게 차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순지의 첫째 여동생은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미 순지와 같은 학교를 선택하여 1학년을 다니고 있다. 자격증을 열심히 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재학 중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졸업 후 돈을 벌어서 대학에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막내는 두 언니와는 다르게 한 달에 20만원 가량 하는 인터넷 강의를 중 1 때부터 전 과목 듣고 있다. 막내는 여전히 성적은 중간정도이지만 예전에 비하여 시험을 보는 데 도움을 얻고 있다고 생각했다. 순지어머니는 경제력이 되면 영어학원도 보내고 싶다고 했다. 순지어머니는 한국에서는 정보가 없고 경제력이 부족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탓인 것만 같다.

2) 아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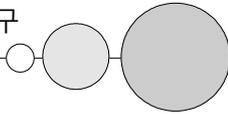
아라의 어머니는 1997년 조선족으로 다른 친척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살게 되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생활은 어려웠기 때문에 아라의 어머니는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장학금 지원을 받아 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다녔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5년부터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다. 1999년에 태어난 아라는 첫째 딸로 4살 아래의 여동생을 두고 있으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에 있다.

(1) 교사가 되고 싶었던 엄마, 의사가 되고 싶었던 아이

아라의 어머니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했다. 대학교 가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당시는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선생님을 할 수 있었다. 아라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 즈음에 중국에 “한국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아라 어머니의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에서 돈을 벌면 빚을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딸인 아라어머니에게 “갔으면 하는 눈치”를 주었다. 그래서 아라 어머니는 한국으로 결혼이주를 선택하였고, 실제로 아라 어머니가 한국에 있으면서 초청비자로 아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나올 수 있었고 세 달이 지나면 불법이긴 하지만 체류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 후 동포들에 대한 체류자격이 완화되면서 이주노동을 하는 일은 수월해졌고 이제는 막내 남동생도 한국에 나와 직장생활을 하며 살고 있다.

아라어머니는 조선족이라 한국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에서의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일하고 여자들은 애기 키우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게다가 중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적지 않아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살다 갈 것인가 돈이나 해서 가지 않나” 하는 눈치였다. 아라 어머니는 “오기”가 생겨 “더 잘 살아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에는 이런 거 없죠? 못 드셔 봤죠?”하는 말에 참 힘들어 친정 식구들에게 전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서 온 다른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어울러 놀면” 술도 마시고, “흥”을 보고 서로 “넌 잘 살아 넌 못 살아” 이런 “비교”를 하게 될까봐 중국여성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라 어머니는 “한국 분들과 마음을 터놓고 옆집 분들과 지내면서” 한국에 정착했다. 가끔 자신이 중국어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알음알음”으로 중국어강사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어 아쉬울 때도 있지만 아라어머니는 “인복이 많다”고 생각했다.

아라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다. 뱃속에서 7개월이 되었을 때 심장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서도 낳았다. 출생 후에도 나아지지 않아서 결국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수술비가 없었다. 시댁을 포함하여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때 입원했던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이 중국에서 이주 온 여성의 아이가



심장병이라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병원에 알려 병원의 지원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 아라어머니는 한국 사람들에 대하여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라는 아기 때 심장수술을 하였지만 건강하게 자랐다. 4년 후 둘째가 태어나면서 아라 어머니는 책을 많이 사서 읽어주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 중 과학소년이라는 잡지를 구독하였는데 아라는 잡지를 읽다가 인터넷으로 응모를 하여 당첨이 되면 고려대학교 캠프에 참가하여 의사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다. 아라는 “어릴 때 수술을 해서 앞으로 나 같은 애들에게 잘해 주겠다”는 내용을 써서 50명 뽑는데 선정이 되어 고려대학교에 갔다 오게 되었다. 그 이후로 아라는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여 “흉부외과 의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게 되었다.

(2) 학원 안 다녀도

아라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씩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90점 이상은 맞았다. 아라 어머니는 90점 이상을 유지하면서 “배경지식을 많이 쌓아 놓아야 나중에 잘 한다더라”는 TV 강사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했다. 실지로 아라와 아라의 여동생은 학원은 다니지 않았지만 집에서 책을 많이 읽었다. 아라가 고학년이 된 후로 아라 어머니가 자활센터에서 7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아이들은 숙제 하고 TV 보고 컴퓨터로 사이버 가정학습 등을 했다. 어머니가 늦게 오기 때문에 방과후로 주로 미술이나 체육, 음악 등을 하도록 했다. 아라는 전과목 학습지를 하였는데 아라 어머니는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과 영어는 따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수학학원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개념과 원리에 대한 설명보다 문제풀이만 하고 중학교 수학을 선행하는 데 초점이 있는 듯해서 그만두게 하였다. 학교에서 멘토링 신청하려고 통신문이 왔는데 어떤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신뢰가 가지 않았다.

아라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는 아라를 키우는 데 관심이 확고했다. 아라가 “공부를 잘 하고 좋은 데 가면 좋겠지만 평범하지만 정이 많은 애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변에서는 때로는 “너무 감싸준다고” 할 정도이지만 예체능 학원만 보내면서 정신과 몸이 건강하고 밝게 크기를 바랐다. 아라 아버지도 초등학교 때는 “책을 많이 읽으면서 밝고 건강하게 전체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아라 어머니는 아라가 “지금까지는 잘 따라주는 것 같다”고 했다. 실지로 아라는 6학년 때까지 반 친구들이 학원 숙제를 풀어주라고 부탁할 정도로 꾸준히 “중상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주위에서 “뭐 믿고 안 보내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지만 아라 어머니는 “주위에서 1학년 때부터 학원을 보내는 걸 보니까 별로 잘 하는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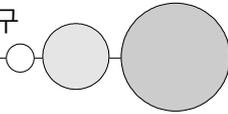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조금 떨어지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엄마가 얼마든지 보내준다” 다만 일년 내내는 아니고 “잠깐 필요할 때 보내줄 수

있다”고 아라에게 늘 얘기를 했다. 대신 집에서 아이들 공부할 때는 TV를 켜지 못하게 했다. TV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아버지에게는 “나중에 중학교 가면 당신 혼자 있을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 때 실컷 보고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지금은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때로는 아라 어머니가 너무 “큰 소리”를 내서 “아빠의 권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기도 하지만 “애들만 잘 커졌으면” 좋겠다며 다행히 아라 아버지가 어머니의 말을 잘 따라준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했다.

아라어머니는 조선족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학교의 학부모 총회나 면담에도 빠짐없이 참여하였고 처음 학년이 배정되면 항상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다. 중국에서 와서 살고 있으니 “엄마가 중국에서 왔다고 피해를 안 보게 해주라”고 또 “아라는 어릴 때 수술을 해서 흉터가 있으니 혹여 그 때문에 아이들이 놀리는 일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 잘 돌봐주십사” 하는 내용이었다. 선생님을 만나면 잘 하지 못할 말도 편지로는 잘 쓸 수 있었다고 했다. 따로 찾아간 적은 없지만 운동회 때 보면 “아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을 건네거나 답장을 주시기도 했다. 아라 어머니는 “인복”이 많고 “교실이며 선생님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만족해 하는 것은 아니었다. 아라는 교육복지사업이 운영되는 초등학교에 다녔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되도록 빠짐없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한 번은 다문화중점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학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참여하는 역사탐방 캠프에 부모 중 한 명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아라 어머니는 함께 참여하면서 인솔 교사들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는데 “다문화”에 대해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세금은 같이 내고 다문화에서 왔다는 이유로 애네들만 공짜로 해주냐”는 말을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들의 식사와 별도로 교사들만 모여 다른 식사를 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했다. “다문화라고 깔보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가보지 않은 역사유적지를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 역시 불만스러웠다.

아라는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에게서 중국어를 조금씩 배워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중국어의 병음을 다 배우고 당시(唐詩)도 배웠다. 아이가 중국어를 하는 것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신기해 하였다. 아라는 전 가족과 함께 중국 하얼빈으로 외가댁에 세 번 여행을 갔다 왔다. 한 번은 할아버지 할머니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가실 때 함께 배타고 중경까지 갔다 왔고, 칠순잔치에는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다. 아라 어머니가 큰 딸이라 부모님 칠순잔치에 참여해야 했고 병환에 대한 수술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네 가족의 항공권만 약 200만원이 넘었고 겨울에 가서 추웠지만 외조부모가 살아계실 때 “큰 무리인 줄” 알면서도 지금 안 가면 “평생 못 갈 것” 같아 “힘들더라도 저지르고” 갔다 왔다. 덕분에 아이들은 열흘 동안 세계



적으로 유명한 하얼빈의 얼음조각을 보는 등 “신기한 구경”을 할 수 있었다.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하여 안부를 묻는데 자주 전화하니 “옆집에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 정도라고 했다. 아라 어머니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할 것 같다”며 애들 앞에서 자주 전화한다고 했다. 아라 아버지는 중국 여행이나 전화연락 등 그 모든 것에 동의하고 그런 점에서 “잘 맞는다”고 아라 어머니는 강조했다.

(3) 알아서 잘 해요

아라는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자신의 진학 그리고 진로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엄마, 대학을 진짜 명문대를 가지 않는 이상 그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특성화고에 가서 열심히 배워” “교사로 전환”하여 국어나 수학교사는 아니어도 가정교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012년 당시 J시의 명문 특성화고에서 등록금 전액 무료로 기숙사까지 제공하고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전문계 전형으로 “괜찮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것이었다. 아라 어머니는 “천천히 알아보라”고 했지만 아라는 개학하여 바로 진로상담교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고 의사와 교사 중 의사는 아무래도 등록금 지원도 만만치가 않고 본인 생각에도 몸이 아주 건강한 편이 아니고 “마음이 너무 어려서” 힘들겠다는 판단을 했다. 또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도 많이 해주면서 “심리상담사나 교사가 잘 맞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아라는 자신의 진로에 관해 “혼자 열심히 탐색”하고 있었다.

아라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학습지를 안 하고 자습서를 샀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5시나 되어야 집에 오고 아라 어머니가 7시면 집에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집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중학생이 되면서는 오히려 수학보다 영어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아라 어머니는 “솔직히 학원을 안 다니니 영어 성적이 낮더라”고 했다. 하지만 국어는 반에서 최고점을 맞기도 했다. 방과후의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간 48만원까지 지원을 받아 다닐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고 했다. 초등학교와 달리 아라가 중학생이 되면서 “다문화”라고 해서 받는 혜택은 없었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 기준도 엄격해져서 어머니가 자활센터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이 방과후학교와 급식비를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라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도 어머니에게서 중국어를 배웠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때는 밖에서 중국어 하지 말고 엄마가 중국에서 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에서 제 2 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또 “중국이 대세”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면서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았다. 아라 스스로 중국을 안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가졌다. 아라 어머니는 중국도 살기 힘들지만 건축 일을 하기 때문에 아

라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이 있지만 일이 없으면 돈이 없는” 상황이 힘들다고 했다. 이제 곧 육십이 되는데 중국에 비하여 한국은 “빈부의 차이”가 큰 것 같아 걱정이 될 때가 있었다. 아라 어머니는 노후 준비가 전혀 없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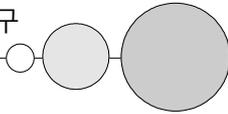
자활센타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한 달에 75만원 받는 것으로는 “발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라 어머니도 전문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어로 “애들 가르치는 것”을 하고 싶다고 했다. 고민이 많았지만 자신이 “남보다 한 가지 아는 게” 있으니 그것이 장점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특히 칠순잔치로 중국에 다녀왔을 때 자신보다 공부를 못 하던 친구들도 자신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친구들은 “왜 재능을 썩히냐”고 했다. “내가 발전을 해야만 나이 들어서 살아갈 수 있고, 남편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제대로 된 걸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공부를 해서 도로아미타불”이 되면 어쩌나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아라 어머니는 전문대학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으며, 아라가 중학교 졸업할 때 함께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4) 해외에서 살고 싶어요.

아라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학원도 안 다니고 스스로 공부했다. 그래도 늘 반에서 상위권이었는데 3학년 2학기가 되어서는 그렇지 못했다. 특히 수학이 어려워져서 수업시간에 열심히 듣고 연습하고 복습했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 “실마리를 풀지 못한다”고 했다. “옆에서 누군가가 탁 집어만 주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라 어머니는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애들도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학원은 너무 비싸서 보내도 몇 개월밖에 못 보내는 사정을 아라는 너무 잘 알았다. 집에서 해도 괜찮다고 아라는 말했지만 아라 어머니는 아라가 “철이 좀 빨리 들었다”고 미안해 했다.

아라는 중학교 들어오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었는데 국제교류재단에서 청소년 대상 호주캠프가 있다는 공문이 학교를 통해 들어왔다. 팀별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학생을 선발하여 호주로 견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아라는 발표나 학교행사 참여나 모두 “궁시렁 대면서도” 항상 열심히 했고, “어딜 가도 항상 열심히 하고, 착실하고 성실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열심히 했다고 했다. 결국 광주에서 참여한 35명의 학생들 사이에서 3명만 선발이 되었는데 아라는 그 3명에 선발되어 전국에서 모인 30명이 함께 호주를 일주일 동안 다녀오게 되었다. 그 곳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알게 된 호주 친구와 아직도 이메일도 주고받고 있었다.

2014년 늦가을 그렇게 호주를 갔다 오고 나서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도 아라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 재단으로 봉사활동을 갔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



고 눈이 와도 혼자 갔다. 거기서 대학생 언니오빠들도 만나고 가끔 “맛있는 것도 얻어먹으면서” “인맥”을 쌓았다. “멘토”처럼 지내고 있는 그 교류재단의 인턴선생님의 생일이라고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냈더니 선생님은 이만 원짜리 쿠폰을 다시 보내왔다면서 재단에서 유일하게 봉사활동을 가는 고등학생이라고 귀여움을 받는다고 했다. 아라 어머니는 대학원을 다니는 그런 멘토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아라의 “대화의 폭”도 넓어지고 좋은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꾸준히 2015년 봉사활동한 것이 근거가 되어 2016년에는 전국봉사대회에 신청을 하여 광주대표로 선발이 되었고 곧 전국대회에도 나가게 되었다.

2015년에는 지금 다니는 학교가 중국학교와 문화교류를 해서 중국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다. 중국으로 가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100만원의 참가비가 부담이 되어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중국학생을 홈스테이하는 것에는 참여했는데 아라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어릴 때만 병음을 가르쳤고 그 이후로 하지 않아서 중국어를 잘 하지는 못했다. 고등학교에서도 이과에서는 무조건 일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 중국어를 지속적으로 배울 기회도 없었다. 그래도 남동생과의 교류도 꾸준히 있어서 중국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적지 않게 있었다. 아라는 지금도 “한국에서 안 살고 해외로 가야지” 만날 그렇게 말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갈 수 있으면 가라”고 했다. 50살이 다 된 아라 어머니도 지금이라도 배낭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다.

아라는 지난 4월부터 주말에만 수학학원을 다닌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10시까지 하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 영어가 어려웠지만 이과에 진학하면서는 “언제나 수학”이 어려웠다. “수학 때문에 자꾸 발목이 잡힌다”고 했다. 학원을 다니니 조금 도움은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예전에는 책을 많이 보았지만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고부터는 책을 안 보는 것 같았다. 그 때문에 집에서 공부할 때 어머니와 다투기도 한다. “그냥 건강하고 열심히 학교 잘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하면서도 “핸드폰 하지 말라, 게임 많이 하지 말라, 공부 좀 해라”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믿고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가끔 모의고사 시험 성적에 대해 듣게 되면 “가슴이 철렁, 철렁”하지만, 아라는 “엄마가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아라 어머니는 “네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나을텐데” 말하지만 아라는 “그건 모든 엄마들의 착각” 이란다.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아라 아버지 수입이 조금 높아졌고 그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다행히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장학금을 2년 동안 받게 되었다. 가정형편은 언제나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라 어머니는 “아무리 없어도 네가 필요하면 사야지” 그렇게 말해왔고 그렇게 해주었다. 부모가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을 하다 보니 “힘든 티”를 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아라는 아라 어머니가 보기에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 “독하게”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라 어머니는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중국어능력 시험인 HSK를 보았다. 많이 어려웠지만 다행히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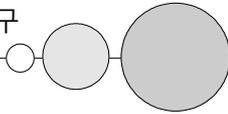
격을 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아라는 대학 진학 시에 우선 1지망은 간호학과, 2지망은 공대 쪽을 알아보겠다고 했다. 이과이기도 하고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컴퓨터 공학 쪽에도 관심이 있고 도시설계 쪽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아라의 어머니는 등록금 문제도 있고 해서 K광역시에 있는 국립대학교 간호학과에 들어갔으면 한다. 취직도 잘 되고 나중에 보건교사를 알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이다. 아라 어머니는 간호사 경력 3년이면 다양한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라 어머니가 보기에 아라는 "자기 앞처리"를 잘 하는 것 같다. 공부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바램은 있지만 자신의 보육교사 경험으로 보아도 "진짜 내가 좋아서 해야지 아니면 진짜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라와는 지금부터 벌써 "엄마 여름휴가 때 어디를 가고 싶다", "언제쯤 어디를 가고 싶다. 용돈은 얼마를 줘야한다" 이런 대화를 하고, "다 키웠다"는 생각을 한다.

아라 어머니는 요즘 노후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라 여동생이 사회성이 부족하고 아라만큼 "자기 앞처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아라와 달리 요즘 스마트폰에 빠진 중학교 1학년인 아라 동생은 하루에 한 시간씩 하는 영어학원을 보낸다. 집안에서 아라만을 너무 칭찬하고 어머니도 아라도 동생에게 직설적으로 잘못을 지적하여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동생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아라 동생의 정신건강검사 결과를 보고나서야 깨달았다. 아라 어머니는 자신과 닮은 아라와는 대화가 잘 통하고 신뢰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생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라 동생은 누구보다 "언니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컸고, 아라는 자신이 바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아라에게는 동생의 문제 해결이 자신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4. 두 청소년의 진로 형성 과정에 관한 맥락적 이해

어느 누구나 그렇지만 순지와 아라의 진로는 아직도 형성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지와 아라의 진로형성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어머니로 둔 청소년의 진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맥락적 차원을 발견할 수 있다. 순지와 아라는 모두 가정 내에서 첫째 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에 놓인 저소득층이라는 사회경제적 위치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출신국과 한국어 능력 정도나 한국사람들과의 관계 등 한국사회 정착 정도, 학교교육 지원 방식과 한국의 지배적 학부모문화에 대한 태도, 그들이 속한 교육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그들의 진로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그들이 놓인 맥락의 차원에 따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1) 성향적 차원: 어머니의 학력과 학구적 성향

순지와 아라의 가정은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두 가정 모두 첫째의 학업을 지원하는 데 학원 보내기가 어려웠고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순지와 아라는 모두 학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해도 괜찮다는 태도를 취했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둘은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진로 형성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순지의 어머니는 고등학교만을 졸업하였고 한국어를 따로 배울 기회가 적어서 정착한 지 이미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유창하지 못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지 않았으며 청소일을 하며 남편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제한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는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언어교육 등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없어서” 멀어서 보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아라의 어머니는 중국에서는 고등학교만을 졸업했지만 경제적 형편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했을 뿐 “공부를 잘 했다.” 한국에 와서도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듣고 자격증을 따서 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일하였고 자활센터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입학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현재 보육교사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배움에 대한 적극성은 어머니와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아라에게도 하나의 환경으로 제시되었다. 아라는 학교에서 하는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잡지에서 홍보한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여 고려대학교 탐방, 호주 여행, 중국학생 홈스테이 등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국제교류재단에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져 봉사상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력은 분명 아라의 대학진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그가 바라마지 않는 해외여행과 해외취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적극적으로 배움을 찾고 도전을 해 나가는 성향은 ‘학구적 성향’(서덕희·오성배, 2012)으로서 교육이 제도화된 학교교육에서도 그 성향이 길러질 수 있지만 모든 성향적 차원의 문화가 그러하듯이 가정에서 초기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경향이 더욱 크다. 물론 부모의 학구적 성향이 자녀를 통해 그대로 전수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동일시의 대상으로 그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될 때, 즉 서로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부모의 삶이 자녀의 모범이 될 수 있을 때 그러한 성향이 형성된다. 이는 아라의 여동생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데 아라의 여동생은 아라와의 비교를 통해 늘 ‘부정적’이고 결핍된 이미지로 자신의 자아를 의미화한 경우로 학구적 성향이 형성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통적 차원: 어머니의 교육관과 교육지원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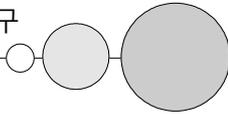
한국의 지배적인 학부모문화는 자녀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더 나아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명문학교에 진학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에서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노후나 건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한국의 왜곡된 승문주의로서의 학벌주의에 대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교육관과 지원방식을 갖추느냐에 따라 자녀들은 서로 다른 교육의 경로, 진로를 형성하게 된다.

순지어머니와 아라어머니는 모두 한국의 지배적인 학부모문화와는 다른 방식의 교육관과 지원방식을 보여준다. 순지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한 바와 같이 아이들 학원을 보내기 위해 오전에만 하는 일을 오후까지 연장해서 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혹시 자신을 “냉정 엄마”라고 말한다고 해도 본인의 체력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아라어머니는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혹은 “학원을 보내지 않는 것”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더 중요하고 오히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순지어머니와 아라어머니는 한국의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자신의 노후나 건강까지 희생하고 자녀의 사교육 지원을 하는 학부모문화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순지어머니와 아라어머니는 자녀의 성장, 특히 진로 형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순지어머니는 “재능”이 있으면, 즉 “하나라도 자신감이 있는 것”이 없으면 살아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함으로써 상당히 높은 진로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본 반면, 아라어머니는 타고난 “재능”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부모로서 자신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후천적 교육을 중시하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아라가 “잘 따라주었다”는 식의 표현은 타고난 재능보다는 길러진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순지어머니와 아라어머니가 서로 다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순지어머니는 할 마음이 있으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교교육 과정에 본인이 특정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는 대학진학의 경우도 본인이 진짜 대학에 갈 마음이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든 지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써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반면, 아라어머니는 아라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도 책을 많이 읽어주고 교사에게 편지를 쓰는 등 학교교육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라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적이 더 오를텐데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수험학원 등 자신이 좀 더 일찍 지원을 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후회를 한다.

순지어머니나 아라어머니 모두 한국의 지배적인 학부모문화와는 거리를 두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모의 교육적 지원이 자녀의 능력 개발과 진로 형성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고 보느냐의 여부에서는 확연히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순지와 아라의 학업성적의 차이로 나타났다. 물론 순지어머니의 경우도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막내딸의 전과목 “인강”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공부를 해도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는 순지어머니의 교육관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한국사회의 교육과정을 포함한 시스템이 순지어머니의 교육관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적 차원: 한국의 교육제도와 운영방식

순지와 아라의 진로가 형성되는 맥락에서는 어머니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제도적 맥락이 있다. 즉 이들의 진로가 형성되는 제도적 맥락으로서의 ‘법’은 특정한 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그들을 지원하거나 혹은 방임한다. 이들은 우선 보편교육이자 의무교육인 초등학교교육과 중학교교육에 참여하였지만 소위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래에서 다른 선주민학생들과는 다른 교육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초등 단계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적지 않았으며 학교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라의 경우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상당히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은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순지어머니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진학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탐색이 가장 절실한 중등교육과정 속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학력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중등과정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서덕희, 2012).

게다가 고등학교의 경우 계열이 달라지면서 학교교육에서 경험하는 교육적 경험의 기회 자체가 달라졌다. 고교다양화정책과 학교선택제라는 제도적 맥락이 이들이 경험하는 고등학교에서의 진로형성을 다르게 조건지었다. 학교선택제의 영향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자기 학교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라처럼 적극적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었다. 특히 K광역시처럼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없어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시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그러한 경쟁이 적지 않다. 반면, 사회적으로 수요가 높고 등록금지원과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와 달리 순지가 다닌 일반 전문계 고등학교는 취업하기도 어려운 전공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공 자체가 사회적 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다수가 여전히 취업에서도 사무직을, 그리고 대학진학을 추구하다 보니 실습을 통한 직업교육은 형식화되어 학생 개인에게 떠맡겨지고 있었다. 학교는 취업률을 올리고 외부 홍보를 위해서도 여전히 소수의 성적우수자들을 대상으로 전공교육과 무관한

공무원시험과 공기업 취업을 지원하였고, 전공 자체에 관심을 두고 온 학생들은 오히려 관심과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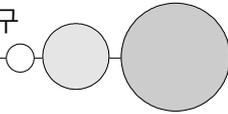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열심히 학교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라는 봉사상도 받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반면, 순지는 실질적으로 그 전공과 관련한 심화교육에 대한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졸업하게 되었고 졸업 후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직업교육을 받게 된다. 순지에게 고등학교 3년간의 직업교육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후 별도의 지원을 통해 다른 전공의 직업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의 보편적 직업교육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앞서 성향, 전통, 법이라는 문화의 세 차원에 비추어 볼 때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두 여자 청소년을 사례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진로가 형성된다고 볼 때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건강한 진로 형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하여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주여성들에게 학구적 성향은 자녀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구적 성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되며 동시에 본인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래어머니의 학구적 성향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얻어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본인이 자신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는 힘이며 실지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한국사회에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2세대의 건강한 진로형성을 위해서는 1세대인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이주여성들 모두가 그들의 학구적 성향을 촉발하고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다각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교육이 아니더라도 이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학구적 성향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회에 도전함으로써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적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사회 지배적 학부모문화의 과잉된 결과중심, 학벌중심, 가족중심의 교육지원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크다고 볼 때 이주여성들이 그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교육관과 지원방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다행인지 모른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교육관과 지원방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자녀들의 진로 형성에 있어서 장벽을 만나지 않으려면 중등교육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의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순지의 경우 언어적 문제에 부딪히기는 하였으나 언제나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였고, 아라의 경우는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연습과 복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순지와 아라, 두 어머니 모두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는 교



육과정 자체의 양을 줄이고 수준을 낮추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셋째, 학교급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로 관련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중학교에 진로상담교사가 배치되고 진로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로상담교사는 일반학생들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시행한다. 그러나 이주배경 학생들의 진학과 직업교육 등 진로는 선주민 학생들과는 제도적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지원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하기에는 학교는 너무 멀고 교사의 수가 너무 적다. 고교다양화와 학교선택제 이후 고등학교 진학 시부터 입시와 관련한 정보와 그에 따른 준비 상황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소위 정보 격차에 따른 그 자녀의 진로 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시스템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순지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교다양화와 학교선택제 이후 주변화된 많은 고등학교들은 전공교육을 포함한 자신들의 교육의 본분은 아예 도외시하고 취업과 취업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형식화되고 인성교육이 도외시되는 문제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취업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이 형식화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수 있는 지역에서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가 위기가 처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닌 전문계 고등학교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고등학교 입시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소위 일반계 인문계 고등학교 못지 않게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저소득층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진로 개척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지영(2011).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진입의 맥락과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김지혜(200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서덕희·김은석·조은혜·임경환(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서덕희(2016). 문화의 차원에 비추어 본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상황과 진로지원. 한국교육학연구 게재 예정.
- 양계민·김승경·김윤영(20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 연구Ⅲ. 한국청소년개발원.
- 엄태영·박은하·주은수(2011).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

회연구 31(3): 197-222.

황매향·선혜연(2013). 취약청소년 진로발달 연구 동향. 상담학연구 14(6): 3517-3536.

Glaser, B. G. and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Chicago: Aldine.

Heppner, M. J., & Jung, A. K. (2013). Gender and social class: Powerful predictors of a life journey. In B. W. Walsh, M. L. Savickas, & P. J. Hartung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4th ed., pp. 81-102). New York, NY: Rout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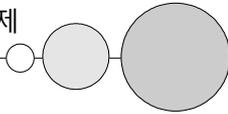
Stake, R. E.(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Routledge.

Yin, R. K.(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eds. Sage Pub.

2016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이주민 자녀세대와 다문화사회의 과제”

다수와 소수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사회의 과제 **- NGO 등 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다수와 소수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사회의 과제

- NGO 등 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제기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유도되는 큰 흐름 중의 하나가 국가 간 이민정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사회 구성원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사회 주도로 다양한 구성원과의 공존과 사회통합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전형적인 이민국가가 아닌 이민 후발국가로 현재 사회통합은 한국이 당면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와 함께 다양성, 관용, 통합, 다문화주의는 새로운 한국 사회의 질서를 마련해 나아가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미 '공존'과 '통합'을 방해하는 물결은 선주민과 이주민간의 대립 각을 이루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한국 정부의 이민정책은 사회통합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그 명확해진 대상을 향한 사회복지 차원의 시혜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한 구성원과의 공존의 관점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¹⁾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증하는 이주민 자녀세대에 대해 정책지원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전 결혼이민자 중심의 정책방향에서 차츰 그 대상이 이들의 자녀와 기타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으로 확대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해외사례를 제시하여 현재 한국 사회의 이주민 자녀 담론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관해 결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박응희, 2014; 김도혜, 2012; 정수정, 류방란, 2012; 이민경, 이수정, 2011). 그 대상을 보다 구체화 시켜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과 진로에 관한 구체적 정책지원(이수진, 김현주, 2016; 조혜영, 양계민, 2012; 양미진, 2012), 이주노동자 자녀의 적응에 대한 논의(이민경, 김경근, 2009)들을 한 연구도 있다. 이 밖에 가족정책과 교육정책 아젠다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 향후 방향성을 제시

1) 이주민의 증가로 한국정부는 대표적인 이주민 집단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의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은 '제노포비아'들을 자극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제노포비아들의 '반다문화주의' 주장은 담론화 되기 시작했다. 한국 역시 2003년 10월 '다문화 바로보기 실천연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총 4개의 '반다문화', '반이민'을 주장하는 조직이 생겨났다. 현재 일인 시위등과 온라인 카페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으며 정부의 다문화 정책과 최근 이자스민 의원의 법안 반대서명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최영미, 2015).

하고자 하였고(이민경, 2012), 이주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이주 청소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주청소년의 요구를 분석하였다(오경석, 2010). 반면 이주 청소년의 정체성(최대희, 2015; 김기현, 2013) 과 미디어에 재현되는 이주아동을 분석(권금상, 2008)하는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는 사회복지와 가족의 관점에서 이주민 자녀를 분석하여 미시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고, 보편과 특수과 분리되지 않은 채 일반 청소년으로서의 보편적인 특성이 배제된 경향이 있으며 연구의 대상과 정책의 대상이 소수자인 이주민 자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단일 방향성의 한계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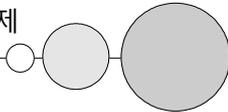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주민 자녀세대와 함께 '공존'의 가능성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할 수 있는 '다수'인 선주민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 인식정도, 다문화 수용성, 문화다양성 등으로 연구가 되기도 하며, '국민다문화 수용성 조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미 학교를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은 시행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에서도 이주노동자 청소년 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제 2차 다문화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다문화이해교육' 추진현황과 학교 교육프로그램과 기타 시민단체의 활동분석, 독일의 청소년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향후 '다수'인 선주민 자녀세대를 위한 과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정책현황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동질감을 느끼고, 이러한 집단을 내집단으로 구별하는 반면,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외집단으로 규정짓는다. 선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이주민은 외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외집단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감정을 갖게 되며 이것이 외집단과 내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유승무·이태정, 2006).

교육과 관용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학력자일수록 관용의 가치를 내면화하여(Federico, 2005), 이것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Vedlitz and Zahrabn(2007)은 교육과정에서 관용을 의식화하기 때문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심어주고 이것은 외집단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주민' 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이미 존재하고 이를 위한 인식개선을 주요 추진성과 및 향후과제로 발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정책」 2015년 주요 추진성과 및 평가 중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예방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다양한 인종,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둘째,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셋째,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넷째,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다섯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나 성장기 자녀를 위한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문화 이해교육은 현재 이주민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고 있는 학교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교육내용, 학교생활 환경 전반에 걸친 접근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교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00년대 말부터 교육부와 교육자치단체에서는 교사,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과정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중앙교육연수원, 시·도 교육연수원을 통해 현직 교원의 다문화이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교사용지도서, 교육에 활용할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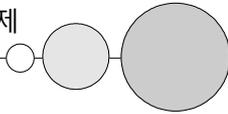
<표 7> 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현황

일반학생-다문화 학생 간 상호 이해 교육 강화	
추진체계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세부시행계획 수립(시·도 교육청)
사업목적 및 내용	-다문화 교육 및 맞춤형 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및 맞춤형 지도 추진
2015년 추진실적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
2016년 추진계획	모든 학생이 인종과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다문화 중점학교 확대 운영 (150교 → 180교)
다문화 교육내용을 교과서에 반영	
추진체계	-교과서(국·검·인정) 개발 절차에 따라 편찬기관 및 발행사, 출판사, 교과용도서 심의위원회, 국정도서 연구학교 등을 통하여 추진
사업목적 및 내용	-모든 학생에게 반편견·반차별, 다문화 이해 및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교육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개발·보급 -'다문화'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나, 인권·관용·소수자 보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강조하는 사례를 교과서에 반영
2015년 추진실적	-3~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활용하여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한 유치원 다문화 교육 실시 -다문화교육 반영 2009개정교육과정 초 5~6 교과서 시행(3월)
2016년 추진계획	-2015개정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내용 관련 내용 반영 -다문화교육 반영 2009개정교육과정 교과서 활용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다문화교육 반영 2015개정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쌍방향 교류·체험 기회 확대	
추진체계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 연계
사업목적 및 내용	-문화다양성 이해 도모 및 상호문화교육 활성화 -실물자료 및 오감을 통한 문화다양성 체험기회 제공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로 다문화 인식 개선 -문화다양성 체험을 위한 전시상자 및 학습자료 '다문화 꾸러미' 개발 및 교육, 보급
2015년 추진실적	-다문화꾸러미 개발 및 운영 -다문화꾸러미 교육
2016년 추진계획	-다문화꾸러미 개발 및 운영 -다문화꾸러미 운영 -다문화꾸러미 활용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다문화꾸러미 교육
교원의 다문화 이해역량 강화	
추진체계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도교육청,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사업목적 및 내용	-예비교원 및 현직교원 연수를 통해 다문화학생 인식·이해 제고 및 다문화 학생 지도와 관련한 교육역량 강화 -교·사대 '다문화 교육과정' 개설 운영 -다문화 이해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직교원(관리자 포함)의 직무 및 자격 연수 참여 확대
2015년 추진실적	-교·사대의 '다문화 교육과정' 운영('15년, 50교) -관리자를 포함한 현직교원의 직무 및 자격연수 참여 확대 -다문화 이해교육 원격연수 콘텐츠 '다문화교육 길라잡이' 개발('15.6월~'16.1월)
2016년도 추진계획	-교·사대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과정' 개설 유도 -현직교원(관리자포함)의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해 각종 자격 및 직무연수에 '다문화 교육'내용 편성, 집합 및 원격 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 추진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진학상담, 위기학생·학업중단 지원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 연수 확대

※ 출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6 시행계획

학교 다문화 이해교육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첫째, 이주민과 선주민 학생 간 상호 이해 교육 강화, 둘째, 다문화 교육내용을 교과서에 반영, 셋째,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쌍방향 교류·체험 기회 확대, 넷째, 교원의 다문



화 이해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 자녀와 교사 모든 대상을 향한 구체적인 교육들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방법론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인종, 문화, 인권, 관용, 소수자 보호, 문화 다양성의 중요한 핵심 단어들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3. 연구결과

(1) 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는 실제 다문화 이해교육²⁾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³⁾ 참여관찰을 하였으며 담당교사와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낸 기록물을 정리하였다. 참가학생은 26명이었으며, 외국인 강사가 직접 언어(스페인어)소개와 해당나라에 대한 지식 교육이 위주가 되었으며 학생들의 집중도와 참여도도 좋은 편이었다. 한국과 컬럼비아 간의 관계, 한국 광고 중에 컬럼비아에 대한 광고를 보여주니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음식, 문화, 전통음악에 대한 유튜브 영상위주로 소개했다. 30분 정도가 경과하자 학생들의 반응이 조금 시들해졌고, 점점 흥미가 떨어지는 것이 보이자 율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살사수업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유명한 컬럼비아인(연예인, 축구선수)을 소개하였고, 컬럼비아 노래를 강사가 직접 기타를 쳐서 들려주니 학생들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컬럼비아라는 다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좀 더 깊은 문화이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낯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색함을 없애는 교육이라 해당국 교사를 통해 컬럼비아를 한번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다소 낯선 나라가 친근하게 다가오고 '긍정적인' 경험을 한번 쌓게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수업이었다.

2) 이하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한 내용은 연구자의 서울연구원의 워킹페이퍼에서 진행하였던 인터뷰를 바탕으로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다(최영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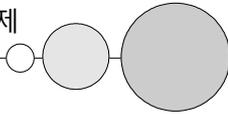
3) 2015년 8월19일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 서울의 M 외국어고등학교 참여관찰기이다.



[그림 2] 서울시 A 고등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 출처: 최영미(2015)

모든 학생에게 반편견·반차별, 다문화 이해 및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하고 인권, 관용, 소수자 보호,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강조하는 교육이라기 보다는 한 나라의 외국인이 '교사'로 등장하여 짧은 시간 안에 그 나라에 알아가는 교육에 불과했다. 또한 이 외국어 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다문화 이해교육'을 교육하는 교사는 외국인이었으며 매번 실시할 때마다 다른 국가의 교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되도록 다양한 나라를 알게 하고 싶어 겹치게 구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반편견·반파별, 인권과 관용, 소수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이 등장한 일회성 교육 보다는 지속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기록물에서는 교육의 질 이상의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표 8> 서울시 A 고등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기록물

<p>오늘 강연을 통해 케냐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케냐에 대해 알게 되었다.(사례1)</p> <p>흑인에 대한 안 좋은 시선, 편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 조셉 선생님을 봤을 때 생각 보다 피부가 엄청 까매서 조금 무서운 느낌도 들었다. 흑인에 대한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편견 같은게 많이 없어져서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다.(사례2)</p> <p>이번 강연을 통해 흑인과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무의식적인 편견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사례3)</p> <p>앞으로도 이렇게 낯선 국가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면 좋겠다.(사례4)</p> <p>그동안 케냐가 아프리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케냐를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사례5)</p> <p>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프리카도 우리나라와 다르게 없다는 것을 느꼈다. 흔히 말하는 문화절대주의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고 자기만의 문화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문화는 쓸모없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아프리카의 문화도 하나의 소중한 가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사례6)</p> <p>익숙하지 않다고 무조건 거부감을 가지고 배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면 좀 더 폭넓은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글로벌 사회에 발맞추어 앞서 나가는 리더의 자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사례7)</p> <p>이런 교육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타문화를 많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사례8)</p> <p>인도란 나라는 내게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다. 나는 인도를 그냥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도가 실생활에서 종교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배워야할 점이라고 생각한다.(사례9)</p> <p>이렇듯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태도는 인도에게서 배워야할 덕목인 것 같다.(사례10)</p> <p>인도라고하면 어려운 나라, 아직도 신분제가 있는 나라 등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머리 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통해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많이 깨진 것 같다.(사례11)</p> <p>원래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으로 여겨서 미개하고 그중에서 잘난 사람은 마하트마 간디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진로 수업을 듣고 나서 인도는 문명적이고 역사와 문화가 깃들여 있는 큰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사례12)</p>

학생들의 기록물을 통해 아프리카 케냐에 대해 다소 낯설, 부정적인 시각들이 교사와의 접촉을 통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케냐와 인도는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낯선 국가였으며, 특히 인도는 경제후진국, 미개한 나라, 여성차별, 신분제가 존재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수업을 통해 인도의 긍정적인 면

들을 볼 수 있는 시각도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교사는 해외거주 경험이 있으며 강사와 소통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진로탐색 교육의 일환이라고 이 프로그램을 생각하는데 새롭게 진로를 탐색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담당교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나요?(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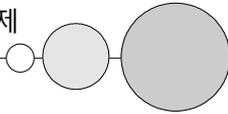
-나라별로 두 달에 한 번씩 그리고 한번 했던 나라는 다시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절반가량이 해외 거주 경험이 있으며 외국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소통에는 문제가 없어 무리가 없습니다.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본 교사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 요청하여 두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니 담당교사와 파견 교사 간의 소통의 문제도 있고 교육청에서는 실시하라고 공문을 보내기는 하나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추가적으로 이 업무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학교는 외국어 고등학교이고 학생들의 절반 가량이 해외체류 경험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외경험이 많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영어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도 두려움 같은 것은 없어보였다.

학생들이 선호/기피하는 국가가 있나요?(Q)

-학생들은 나라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는 별로 선호하지 않으며 왜 유럽 선생님들이 오지 않는냐며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유럽, 그 다음이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순입니다. 경제후진국이며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국가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아프리카 목사님이 한번 오셨는데 학생이 한번 질문을 했어요. 왜 아프리카와 남미는 못 사는데 행복해 보이냐고. 그 다음 선생님의 답에 저희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이다." 그날 저도 학생들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이미 학생들이 선호/기피하는 국가가 나뉘어져 있고 그 순서는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권이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에 대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교



육 참여 흥미를 많이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정서적 교감과 교류를 느끼기에 무리가 있는 일회성 교육에 머물러 있으나 파견교사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성이 좌우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나요(Q)

-한번은 베트남 선생님이 “우리나라 볶음밥 맛있다. 한국 볶음밥 맛이 없다” 라고 얘기했더니, 한 학생이 “왜 문화를 비교하냐?” 라고 대답해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진행되는 프로그램 이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교육을 바라보았고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이주민과 선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 충분히 발생하는 갈등의 상황에 있어서도 미리 연출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Q)

- 프로그램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참여유도 공문은 내려오나 담당교사의 관심에 따라 시행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한국을 알리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교육이 애국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프로그램은 전혀 강제성과 의무성이 부여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청의 참여유도 공문 정도이며 따라서 담당교사가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라 담당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고등학교의 교사는 해외체류 경험이 길어 외국인 교사를 대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 교육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의미에 대해서는 ‘애국심 교육’, ‘진로 교육’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는데 본 교육의 목적과 당위성을 실제 실시하는 교사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다른 개선점은 없나요(Q)

-특별히 개선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업이 담당 선생님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대학원생이나 그런 경우에 수업준비가 별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2-3년 전에 썼던 자료를 업데이트 없이 그냥 쓰거나. 아무래도 대학원생들은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열정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담당교사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반편견, 반인

중,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연결하기 보다는 각국 나라 소개 위주의 편성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학생들이 알아가고 그것이 바로 애국심 교육이라는 말로 마무리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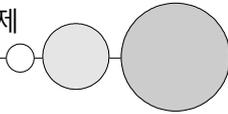
(2) NGO '문턱을 넘어라' 프로그램⁴⁾

경기도 P시의 NGO 기관은 '청소년 이주노동자 서포터즈'를 만들었고 P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이주노동자 서포터즈가 되었다. 청소년 서포터즈의 영역을 확장해서 '지역문화예술학교-문턱을 넘어라'가 매월 1회 진행되었다. 학부모 대표, 파주지역 예술가와 삼십 명의 청소년들과 일 년 동안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학교 다문화 이해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단 일 년의 기간 동안 매월 1회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예술소재를 가지고 풀어나가고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주제와 이야기를 가지고 이번 해 11월에 전시회를 할 예정이다.



[그림 3] 문턱을 넘어라 프로그램

4) 문턱을 넘어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2016년 8월 13일 기관을 방문하여 참여관찰 한 후 작성하였다.



<표 9> 프로그램 팸플릿 내용

자면 뭐해? 책 만들자!

애들아, 너희들 문턱에 걸려 넘어져 본적 있니?

어딘가 들어가고 싶은데, 문턱이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 본적은? ...

눈에 보이지 않는 문턱도 있어.

나한테는 문턱이 높은 곳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고.

우리,

동네에서 한번, 찾아보고 찍어보고 표현해 볼까?

우리 사회에는 어떤 문턱이 있을까?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본 프로그램은 학교의 다문화 이해교육과는 다르게 1년간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주민의 인권과 문화다양성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정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를 초청하여 얘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거리로 나가 이주민이 되어 보기도 하며, '사진' 작업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프로그램을 기획한 기획자들도 다양한 구성원들(이주민 활동가, 예술가 등)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도 경험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학생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일방적인 '다문화 이해교육'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 독일의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⁵⁾

독일은 인종차별주의의 오랜 영향으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있는데 주정부, 연방정부, 유럽연합과 서로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chule ohne Rassismus(인종차별 없는 학교)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5년에 'Schule mit Courage' 문구가 추가되었다. 1700개의 학교가 속해 있는 독일에서 가장 큰 학교네트워크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동참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차별, 왕따, 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설립되었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동독 서독 상관없이 약 백만 명의 학생이 속해 있는 2000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선생님과 사회교육학자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생, 선생님, 학교관리직을 포함한 모든 학교 관련자의 70% 이상이 학교폭력에 반대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서명을 하면 "Schule ohne Rassismus mit Courage"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5) 이하에서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안내 책자와 기관방문 및 담당자와의 면접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민족주의 관련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종교, 출신배경, 성별, 신체적 특징,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 나아가 반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키며, 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한다. 모든 정당 또는 종교의 대리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Aktion Courage e.V-1992년 뮐른, 줄링엔, 로스톡 기차에서 벌어진 폭력적 인종주의를 계기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부터 독일에서 정식으로 자율 청소년지원 단체로 인정되었다. "Schule ohne Rassismus-Schule mit Courage"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들을 돕고 세미나, 토론 그리고 수학여행 등을 개최한다. 1995년 immauel-Kant Gymnasium in Dortmund가 처음으로 시작, 1999년 39개의 학교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2000년 Sanem Kleff가 단체를 이끌게 되면서 프로젝트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이름도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2005년 첫 번째 Q-Rage 학교신문을 발간, Paulus-Prätorius Gymnasium이 200번째 학교로 참여하였다.



[그림 4] Schule Ohne Rassismus 캠페인

※ 출처: <http://www.schule-ohne-rassismus.org/courage-schulen/alle-courage-schulen/>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동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Q-Rage 학교 신문 발간이다.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청소년 20-25명이 모여 언론인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Q-Rage 학교신문을 발간하고 100000부 이상을 배포하고 있다. 독일 전역의 김나지움, 레알슐레, 직업학교가 함께 원고를 작성하였으며, 편집자 반 이상이 소수 민족에 속하는 집단에 속해있다.

2007년부터는 백만 부 이상이 발간되는 가장 큰 독일의 학교신문으로 자리 잡았으며 11.000학교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어떻게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의 성격처럼)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삶에 관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 이로써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미디어까지 토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2011년 “극우주의에 반대하는 다양성을 위하여”, 2013년 “민족주의 없는 독일”, 2015년 “누가 민족인가?”를 주제로 발행했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학교 문화 창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양한 문화를 접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동성애, 극우주의, 이슬람주의, 난민, 제노포비아, 반집시주의, 성 등을 기본주제로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매년 열리는 랩 콘테스트(우승자는 음반제작의 기회를 얻음), 교과서, 플래카드, 소책자 등의 다양한 자료 출판, 워크숍을 통한 토론 등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Gib Rassismus keine Chance' 는 '반인종주의'를 알리고 계몽하는 것이며, 우선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다. 교사,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단체와 함께 일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생활 곳곳에 존재하는 인종주의적 사건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이를 통해 대화와 토론을 유도하고 동시에 관용과 존중의 마음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그림 5] Gib Rassismus keine Chance 캠페인

※ 출처: <https://www.facebook.com/gibrassismuskeinechance/>

또한 인종주의가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여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를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는 선수의 성취보다 출신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학교에서는 왕따를, 실생활에서는 주거지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클럽의 출입을 제한받는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로 접근하고 있다.

모든 프로젝트와 활동은 파트너와 교육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활동은 'Fit gegen Rechts'로 학생의 자조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종주의적 행동방식을 없애기 위한 교육학적인 모델과 수업자료가 사용되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Anti-Rassism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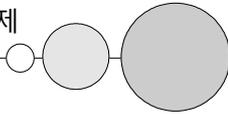
Training은 관용의 자세를 교육하는데 기여한다. 상황극이나 시청각자료를 활용하여 인종주의에 대해 인식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일상에서의 차별 또는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Stadtwerke-Projekt 는 매년 5명의 청년이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25년째 진행 중이며, 행사일정으로 안네의 일기 영화 상영을 홍보하거나 'Klaenge des Verschweigens' DVD 판매를 소개한다.

4. 시사점 및 결론

급증하고 있는 이주민들로 인해 한국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이민정책을 필두로 하여 이주민과 선주민의 지역사회통합은 당면한 과제이며 그중에서도 향후 자녀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이민을 경험한 국가는 아직 한국사회에서 표출되지 않은 사회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것은 그 사회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민 전형국가는 아니지만 한국보다 더 먼저 이주민을 받아들였고 독일사회의 강한 민족주의 성향으로 인해 이주민과 선주민의 갈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최근 난민과 테러 등의 문제는 독일 사회 전반에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적 성향을 부추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주변국과 유럽연합 등과 협력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이것은 학교교육과 반인종주의 캠페인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다수 구성원의 인식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이해교육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이미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보완점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에서 NGO에서 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인식을 하루아침에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끊임없는 정서적 교감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문화를 접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현대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을 기본주제로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기본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동성애, 극우주의, 이슬람주의, 난민, 제노포비아, 반집시주의, 성 등을 기본주제로 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웬디브라운(2010)은 그의 저서에서 관용이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열린 태도이며, 이주민의 문제 역시 선주민과의 갈등 상황에서 흔하게 관용담론을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관용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내, 외부에 존재하는 민족과 타자간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낸다(웬디브라운, 이승철역, 2010). 따라서 이러한 관용의 담론이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를 교육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금상(2008), "미디어에 재현되는 이주아동에 관한 연구: 영상물에 나타난 이주아동의 형식·내용·의미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연구』 3(2), 31-78.
- 김기현, 이재희, 호혜미(2013), "결혼 이주 가정 및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 탐색과 형성", 『사회복지연구』 44(1), 165-192
- 김도혜(2012), "한국 이주배경 청소년 분류와 관련 정책의 한계점: 미국 사례와 비교", 『현대사회의 다문화』 2(2), 305-332
- 민가영(2009), "교육소외 경험에 대한 트랜스내셔널 비교연구: 이주노동자 자녀와 한국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4), 225-252
- 박응희 (2014), "직업능력개발에서의 상호문화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독일의 이주배경 청소년 동향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9(1), 147-166
- 양미진, 고흥월, 김영화, 이동훈(2012),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주 후 적응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2), 87-114.
- 오경석(2010), "입국초기 이주청소년의 경험과 다문화 사회 복지의 과제", 『임상사회사업연구』 7(3), 33-54
- 유승무·이태정, 2006, "한국인의 사회적 인정 척도와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담론 201』, 한국사회역사학회, 275-311.
- 유진이(2014), "이주청소년 및 이주아동·청소년 모(母)의 인권실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12(1), 111-126.
- 이수진, 김현주(2015),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족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3(5), 205-235
- 이민경(2012),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 모색: 가족과 교육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8(3), 157-182.
- 이민경, 이수정(2011), "다문화 아동, 청소년 정책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 정책용어와 방향성에 대한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 이민경, 김경근(2009), "이주 근로자가정 청소년들의 적응전략", 『교육사회학연구』 19(2), 107-132
- 장임숙, 김희재(2014), "이주의 사회과학적 고찰: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60, 50-67
- 정수정, 류방란(2012), "독일의 이주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한국비교교육학』, 47-77.
- 조혜영, 양계민(2012), "중도입국 청소년 학업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141-168
- 최대희(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독일의 논의", 『EU연구』 40, 123-155

최영미(2015), "서울, 제노포비아에게 묻다" 『서울연구원』

Brown, Wendy(2010), Regulating aversion :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이승철 역. 2010.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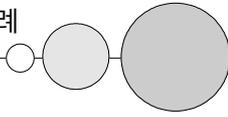
Federico, C(2005), "Racial perceptions and evaluative responses to welfare: Does education attenuate race-of target effects?", 'Political Psychology' 26(5), 683-697.

Vedlitz, A. and S. Zahran(2007). "Theories of ethnic social distance: Cinoparative emprical tests for three distinct ethnic groups", 'Sociological Spectrum' 27, 585-603.

2016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이주민 자녀세대와 다문화사회의 과제”

다문화가족 자녀 대안교육 프로그램 사례

허승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사무국장)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운영사례발표



2016. 09. 22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 01 센터 건립 추진경과
- 02 건립 개요
 - 운영 Concept
 - 주요시설 안내
- 03 센터 운영현황

01 센터건립 추진경과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추진경과

2006~ : 천주교 수원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수원 엠마우스 활동
 2012. 10. 18 : 수원 "우리드림센터" 운영(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공부방)

교구 내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운영 기관, 단체 등 28개소



추진경과

2014. 06. 20 : 삼성전기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의향서 접수
 2014. 09. 11 :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가칭) 건립계획 수립
 2015. 02. 25 : 글로벌청소년지원센터(가칭) 설립 간담회
 2015. 03. 03 : 수원시,삼성전기, 천주교수원교구 업무협약



추진경과

- 2015. 05. 12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명칭공모 확정
- 2015. 06. 25 : 기공식 개최
- 2015. 10. 08 :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5. 12. 30 : 수원시·(재)천주교수원교구 위·수탁 체결
- 2016. 05. 03 : 준 공
- 2016. 05. 10 : 개 관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추진경과

2015. 01 ~ 2016. 05 : 총 27차례 민·관·산 회의 개최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추진경과

2015. 07 ~ 2016. 04 : 총 20차례 건축관계자 회의 개최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02 건립 개요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건립 개요

사업명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건립공사
용도	노유자 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지위치	팔달구 팔달로 141번길 4 (화서동 70-10)
대지면적	480㎡ (145평)
사업규모	연면적 1,428.82㎡(432평)
건축규모	지상1,2,3,4,5층 / 지하1층
사업비	41억원 (삼성전기 건립기금 28억원 / 시비 13억원)
주차대수	7대(지상7대)
시공사	Hautech 하우텍 C&R 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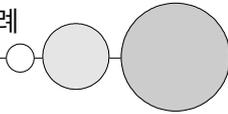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층별 운영 Concept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03 센터 운영 현황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운영현황

위탁개요

법인명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위탁기간	2016. 1. 1. ~ 2018. 12. 31(3년)
인력현황	9명(센터장 1, 사무국장1, 팀장2, 팀원5)
운영예산	570백만원(민간위탁금 520백만원, 법인 50백만원)

운영개요

운영근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위·수탁 협약서 제10조, 제12조
이용대상	이주배경을 가진 만12세~만23세 청소년 및 그 가족 지역사회 내 중·고등학교 일반 청소년 및 지역주민
이용시간	연중(09:00~18:00) 월~금, 필요시 토요일 운영
주요사업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 정서, 자립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등

설립목적 및 목표

- 1 /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족의 지역 기반형 지지체계 구축
- 2 / 통합사례관리 실천을 통한 이주배경 청소년/ 가족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 3 / 교육, 정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글로벌 인재화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족들의 역량을 계발하고,
지역사회주민과의 소통과 인식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지지망 구축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의 기반을 조성한다

사업구성



▶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공교육에 진입하였으나 교사·친구와의 관계 불안, 학업부진, 언어장벽, 문화차이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거나 학업중단의 위기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교과 운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적용하고 다시 공교육에 잘 진입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방과후 공부방

언어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내 공교육 시스템 및 한국사외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사업개요

- 대상 : 만 12세 ~ 만 23세 이주배경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 모집기간 : 연중 모집
- 과 목 : 한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음악
- 운영시간 : 17시 ~ 19시, 월~금(필요시 토요일)

▶ 초기적응 지원 예비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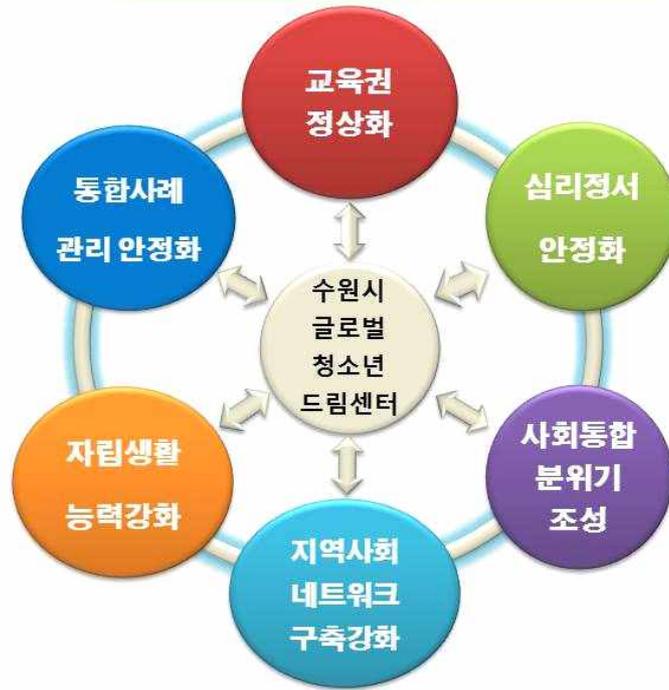
언어 및 문화부적응, 경제적인 빈곤 및 학교 진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수준별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외 조기적응도모를 위한 대안교육을 통해 정규학교로의 진학을 지원

■ 사업개요

- 대상 : 만 12세 ~ 만 23세 이주배경 청소년
- 모집기간 : 연중 모집
- 과 목 : 한국어, 영어, 수학, 체육, 창체, 기술가정(바리스타,제과제빵,요리) 등
- 현장체험학습, 여름·겨울 캠프, 부모교육, 발표회 진행
- 운영시간 : 10시 ~ 16시, 월~금



향후 계획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차별의 낮을 버리고 차이의 닳을 올리다

다양성이 글로벌 인재를 만듭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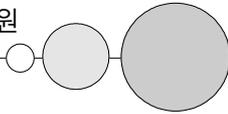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2016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이주민 자녀세대와 다문화사회의 과제”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 교육 및 진로지원

- 프로그램 중심으로 -

허수경 (무지개청소년센터 초기지원팀 팀장)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 교육 및 진로지원

- 프로그램을 중심으로6) -

허 수 경

무지개청소년센터 초기지원팀 팀장

1. 서 론

한국사회의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각종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일상에서 빈번한 경험으로 체감하는 수준이다. 외국인등록인구 180만시대, 초·중등학교 **다문화학생 비율 1% 상회** 등 다문화사회의 변화는 전통적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청소년들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15년 외국인주민수는 11%(외국인주민수 '14년 1,569,470명→'15년 1,741,919명)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령기 연령층 증가와 10대 후반의 중도입국청소년의 수가 급증했으며 그 가운데 17세이상의 후기 청소년 수가 대폭 증가한 추세로 나타났다. 출신국별로는 중국(조선족 포함)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거주지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에 집중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주민자녀의 연령별 현황은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연령별 수 통계에서 확인하듯이 2015년 17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후기청소년은 약 12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 유학생이나 한국주재외국기업에 다니는 부모를 둔 자녀 등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 확실 시 되는 청소년들을 제외한다고 해도 적지 않은 수가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6) 본 발표문은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발간한 연구 중 『2015년 사업활동보고서』,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양성교육』,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진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발췌 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이 연구 보고서는 본 재단에서 진행하는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다.

<표 10>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국적미취득자(1,376,162명, 79%)					국적취득자(158,064명, 9.1%)		자녀 (결혼 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의 미성년 자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 적동포 (거소 신고자)	기타 (투자, 취재 등)	혼인귀화	기타 (귀화, 입양 등)	
608,116명 (34.9%)	147,382명 (8.5%)	84,329명 (4.8%)	286,414명 (16.4%)	249,921명 (14.3%)	92,316명 (5.3%)	65,748명 (3.8%)	207,693명 (11.9%)

외국인주민: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취득자)를 의미한다.

<표 11> 연령별 체류 외국인 현황

구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소계	20,930명	12,875명	6,801명	14,240명	113,499명
남	10,639명	6,557명	3,486명	6,529명	59,863명
여	10,291명	6,318명	3,315명	7,711명	53,636명

출처: 행정자치부(2015. 7), 외국인주민현황조사
출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5. 6), 외국인주민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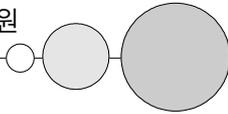
<표 12>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전체	북한이탈	중도입국*	외국인 부모	외국인-한국인부모
212,666명	7,319명	7,431명	14,184명	183,732명
근거	통일부(2014. 12) (9~24세)	법무부(2014.12) (만 19세 이하 귀화신청자)	행정자치부(2015. 1. 1) (6~18세)	

출처: 법무부 이민통합과 통계
※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입국자 중 미성년자녀(F-2-2, F-5-3). 만 19세 미만 귀화 허가자 및 귀화 신청자 수

미래 한국 사회는 인구 구성이 더욱 다양해 질 것이며,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 진입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증가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관련 정책 지원과 서비스는 유관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원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이주배경청소년이 소수인 지역까지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어 효과적인 전달체계 및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환경과 이주동향 변화에 따른 포괄적 대상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책과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역 사회 전달체계 효과성 및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는 주로 양적인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양적



규모의 변화에 발맞춰 **출신국가, 인종, 민족, 입국유형 및 체류목적** 등 다문화사회의 구성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에 주목 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에 대한 요구 역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성격이 강해지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대비책을 준비 할 때이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설립이후 **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다. 하지만 한국사회 이주 역사가 길어지고 이주동향 및 입국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주배경청소년 등 처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세분화해야 하는 등 지원의 방식과 질을 달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고민을 해야 할때이다.

2.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급증과 더불어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수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대다수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선택에 의해 이주하게 되면서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재단은 2009년 '다문화아동·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10년 밀집지역인 안산·수원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적응지원 레인보우스쿨 사업을 전국으로 보급,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일반학교 편입학 준비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나 2012년부터 교육부에서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학교를 운영함에 따라 현재 레인보우스쿨은 후기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재단에서 운영되는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초기적응프로그램은 크게 **교육프로그램**(레인보우스쿨)과 **진로지원프로그램**(무지개 Job아라, 내-일을 Job아라)으로 나눌수 있다. 단계적으로는 맞춤형정보제공을 통한 초기교육프로그램인 레인보우스쿨→무지개잡아라→내일을 잡아라→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지원 단계까지 지원한다.



[그림 26] 중도입국청소년 단계별 프로그램 체계도

1) 레인보우스쿨

입국초기 9세~24세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및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사회 기본정보,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한국어교육, 사회심리적응을 위한 교육 및 정서적지원, 학교편입학, 취업, 법률 등 관련정보,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제공 하고 있다. 레인보우스쿨은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전국 22개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유형은 전일제, 주말. 야간, 계절학교(여름.겨울)형태로 운영된다. 레인보우스쿨에서는 한국어과정과 특기적성과정 및 사회문화체험활동을 진행한다. 세부내용과 교과별 시수는 다음과 같다.

<표 13> 레인보우스쿨 영역별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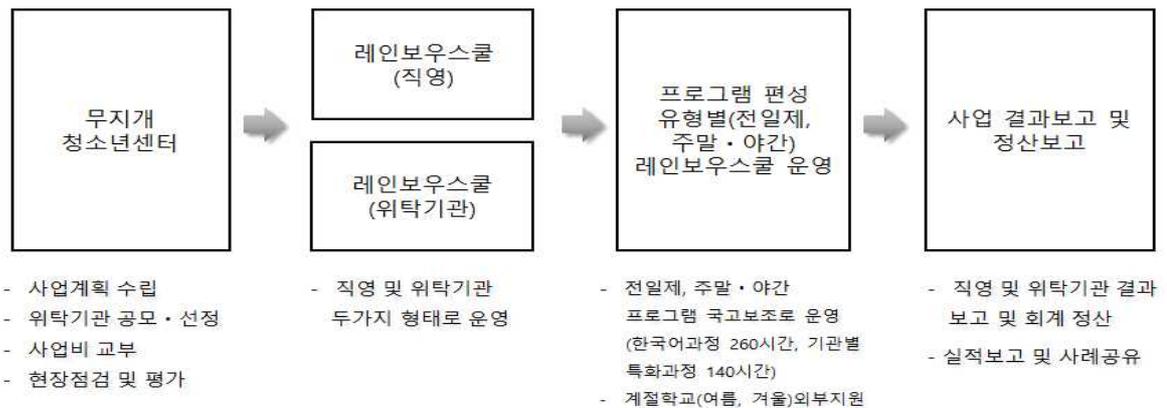
영역	세부내용	시수
한국어	- 기초 한국어 교육(읽기/쓰기/듣기/문법)	260시간
특기적성	- 예체능(미술, 체육, 기타 등), 교과목(책읽기, 영어회화) - 사회문화체험(현장학습, 진로체험, 한국문화 등)	140시간
기타	- 맞춤형 정보제공 (진로, 진학, 직업교육 취업 정보 등) - 개별 상담(생활 상담, 심리상담 연계 등), 부모 상담 - 사후 관리(사례 회의, 근황 파악 등)	수시

레인보우스쿨 운영체계 및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의 2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매뉴얼과 운영지침을 통해 동일한 프로그램과 시수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지역적특성이나 인적 자원을 고려하여 특기적성활동과 문화체험은 진행하고 있다.



[그림 27] 레인보우스쿨 운영체계 및 추진체계



[그림 28] 레인보우스쿨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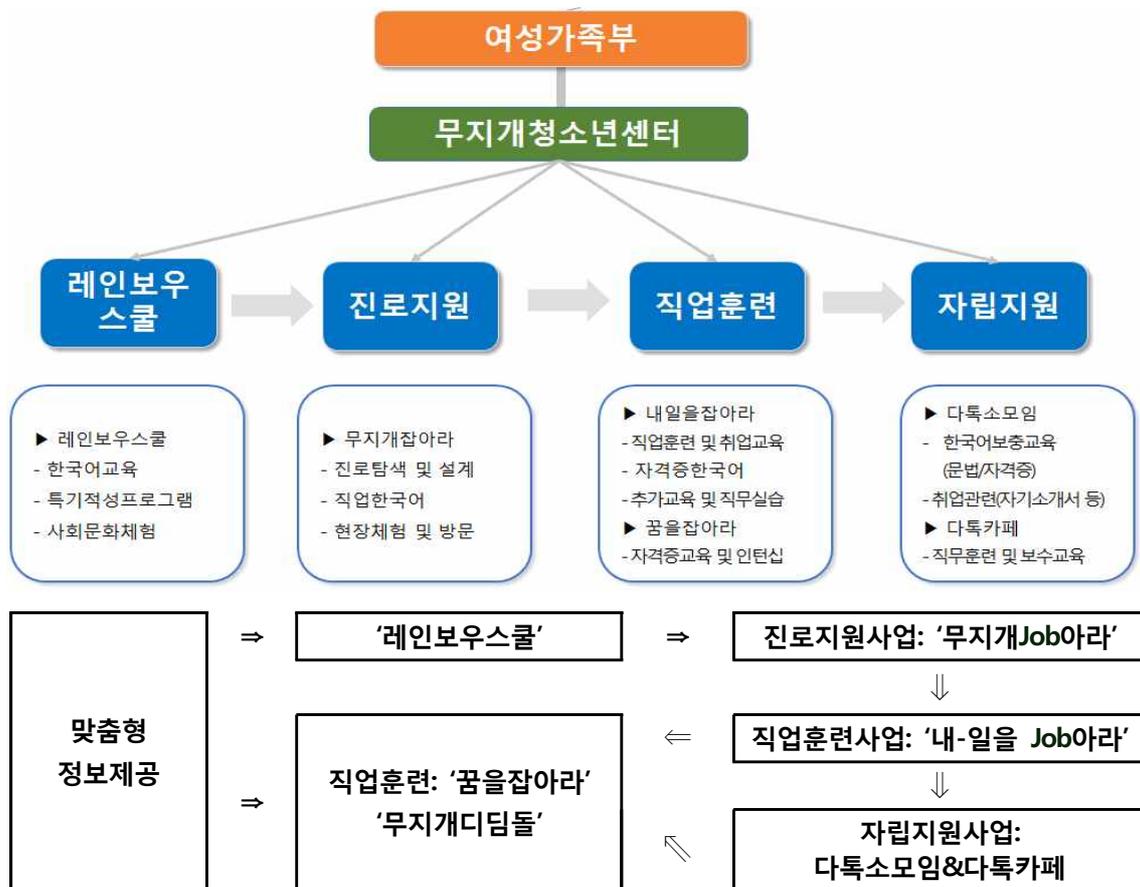
<표 14> 2016년 레인보우스쿨 위탁기관 현황

지역		기관명	운영분야
서울시	종로구	무지개청소년센터	전일제
	금천구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구로구	회원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주말야간
	고양시	(사)밝은미래 경기도지부	
	부천시	부천새날학교	전일제
	수원시	수원이주민센터	
	안산시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평택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광주광역시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일제
대구광역시		대구결혼이주여성인권센터	
대전광역시		사단법인 드림업	
부산광역시		사단법인 부산교육연구소/부산글로벌참교육학교	주말야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국제교류재단	
울산광역시		세린작은도서관	
인천광역시		다문화사랑회	
강원도 춘천시		춘천YMCA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YMCA	
경상북도 경산시		영남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전일제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종합사회복지관	
전라북도 익산시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다문화가정지원센터	

2) 진로지원 프로그램

현재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한 통계자료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통계로 확인되는 외국인주민 자녀수와 귀화 신청수 학교 내 중도입국청소년 수는 결코 적지 않으며 이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언어 및 문화 등의 이질성으로 인해 학교 부적응 가능성이 높고, 이를 통해 학교 중퇴나 학업단절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 진로에 대한 정보가 일반청소년보다 부족하고, 이주자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또한 체류형태가 불안정하거나 여건상 공교육 진입을 주저·포기 또는 중도탈락 등 제도권 밖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데, 학교진학이 어렵고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국비지원 또는 사설 직업기술학

원 등) 교육이나 공신력 있는 자격증 과정 등은 미비한 상황이다. 체류신분이나 국적취득 여부, 언어 등의 불안정으로 평균 취업률은 20%에 해당하며 그마저도 아르바이트 형식의 단기형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정책토론회, 2015년)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나 교육의 중단 등으로 인해 뚜렷한 목표가 없고 자기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로교육과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기에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체험해보는 것은 직업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중요한 시기이며, 진로를 탐색하고 정보와 이해를 통해 동기부여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림 29] 진로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흐름도

재단에서 진행하는 진로지원사업은 두가지 단계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무지개Job아라, 2단계는 내-일을Job아라 프로그램이다. 이후 재단에서 운영되는 자립지원사업 다독카페에서 엄밀한 심사를 통해 훈련생이나 실습장학생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

(1) 무지개Job아라

이 프로그램은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사회진출 및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능력 향상, 자기정립 및 진로탐색 기회 확대,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이 하위목표라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레인보우스쿨의 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레인보우스쿨 수료자를 주요한 대상으로 본다. 특히 레인보우스쿨 수료생 중 초·중등학교로 연계되지 않고 취업과 대학진학을 원하는 청소년이 주요대상이다. 교육생 선발시 **한국어수준**(중급 활용 가능자, TOPIK 기준 3급 이상), **국적 및 체류신분**(교육이수의 안정성 확보, 수료후 취업 등 연계 제한 확인), **본인의지 및 보호자 동의 여부** 등이다.

<표 15> 무지개Job아라 교육과정 및 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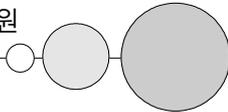
1단계: 무지개Job아라			
진로탐색· 진로설계 과정	유형	진로탐색과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생활 한국어 진로소양교육(지식 및 인성 함양) 현장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직업체험 및 교육 한국어자격증 취득 교육 진로멘토링 및 상담
	운영시수	6주(150시간)	4주(100시간)

가. 진로탐색과정

이 프로그램은 진로탐색과정과 진로설계과정으로 구성된다. 진로탐색과정은 인생관, 직업관, 가치관, 진로관 등을 지각하고 정립하는 과정이다. 총 6주로 구성되며 세부 목표 운영시간은 최소 150시간 이상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교육(직장생활 한국어)90시간 내외, 진로소양교육(40-76시간), 현장체험활동(10-18시간)으로 한다. 진로소양교육은 1회 2시간 기준이며, 현장체험활동은 3시간 기준이다.

<표 16> 진로탐색과정 커리큘럼

프로그램		목표운영시간	
오리엔테이션		1박 2일	
한국어교육 (90시간 내외)	직장생활을 위한 중급 한국어	90시간 내외	
	TOPIK 대비 교육		
진로소양교육 (45시간 내외)	지식함양교육	IT교육	8~20시간
		경제생활의 이해	8~12시간
		직업탐색	10~16시간
	직장상식		
	인성함양교육	자기이해/진로집단상담	10~20시간
자기관리		4~8시간	
현장체험활동(15시간 내외)		10~18시간	
총 시수		150시간 이상	



나. 진로설계과정

진로설계과정은 진로탐색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설계되고 준비되는 단계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을 넘어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의미하며 본격적인 교육, 면담, 지원이 필요한 단계이다. 진로탐색과정은 총 4주(20일)로 구성되며 운영시간은 100시간 이상이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단기직업 체험(30시간 내외), 자격증 취득 과정(60시간 내외), 기타교육(8~12시간), 진로멘토링 및 상담(1인 2회 이상), 수료식이 있다.

<표 17> 진로설계과정 커리큘럼

프로그램		목표운영시간
단기직업체험 및 교육		30시간 내외
자격증 취득	TOPIK 대비	60시간 내외
	기타(운전면허 등)	
기타 교육	자기소개서, 모의면접	8~12시간
	포트폴리오 작성	
진로멘토링 및 상담(교육생별 2회 이상)		2시간
수료식		2시간
총 시수		100시간 이상

(2) 내-일을Job아라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은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프로그램은 직업관련 자격증 취득, 직업 기초실무능력 및 직업 한국어능력 배양, 인턴십 및 취업연계가 구체적인 하위목표이다.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의 주 대상자는 만 16~24세까지의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이다. 본 프로그램은 진로지원 프로그램인 무지개Job아라의 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지개 Job아라 수료자를 주요한 대상으로 본다. 이외에 체류신분, 한국어 능력,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훈련을 받기 어렵거나 국비지원 훈련을 받기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목표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응시를 위한 신분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수료 후 인턴십 및 취업을 위해서는 적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취업 등의 연계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본 프로그램 참여만으로 국내 취업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직업교육의 특성상 중급 수준의 한국어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훈련과정과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구성된다.

<표 18> 내-일을Job아라 교육과정 및 시수

2단계: 내-일을Job아라								
직업훈련 과정	유형	직업훈련 과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 • 자격증 취득 대비 교육 • 공통교육(직업한국어 등) 						
	운영 시수	10주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자격증 취득 과정</th> </tr> </thead> <tbody> <tr> <td>내용</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취득 대비 추가 교육 • 진로멘토링 및 상담 </td> </tr> <tr> <td>운영 시수</td> <td>6주 이내</td> </tr> </tbody> </table>	자격증 취득 과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취득 대비 추가 교육 • 진로멘토링 및 상담 	운영 시수	6주 이내
자격증 취득 과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취득 대비 추가 교육 • 진로멘토링 및 상담 							
운영 시수	6주 이내							

가. 직업훈련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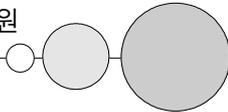
직업훈련 과정은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전문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대비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서비스 교육 등으로 구성한다. 주요 교육 영역은 직업훈련(80시간 내외), 자격증 취득 대비 교육1(40시간 내외), 직업 한국어(40시간 내외)로 편성된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전문 직업훈련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각 지역과 기관의 실정에 맞는 협력의 형태를 가지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 추진의 형태를 지향한다.

<표 19> 직업훈련과정 커리큘럼

프로그램	세부 내용	목표운영시간
오리엔테이션	과정소개 및 참여자 현황 파악	2시간
직업훈련	목표 자격증 이론 및 실습 교육	80시간 이상
자격증 취득 대비 교육1	자격증 필기시험 대비 교육 및 가출문제 풀이	40시간 내외
직업 한국어 교육	회화 중심 한국어(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	40시간 내외
기타 교육	직업이해,고객 응대 등 서비스 활동의 의미 이해, 직무실습	4~10시간
수료식	활동 영상 및 활동 보고, 직업과정별 시연, 수료생 소감 발표	2시간
총 시수		160시간 이상

나. 자격증 취득 과정



자격증 취득과정은 직업훈련과정 이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행시기이다. 사업의 물리적 제약이 있으므로 6주 이내로 기간을 제한한다. 세부과정은 자격증 시험 대비 교유과 진로 멘토링 및 상담으로 구성되는데, 교육생의 성취도 수준을 고려해 진행된다. 본 프로그램은 집중교육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정 중간에 훈련생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표 20> 자격증 취득과정 커리큘럼

프로그램	세부 내용	목표운영시간
자격증 취득 대비교육2	- 목표 자격증 필기 및 실기시험 대비 교육 - 이론 정리 및 기출 문제 문제풀이 - 실기 대비 모의시험 등	40시간 내외
진로멘토링	- 훈련 분야 멘토 연결 - 인턴십 및 취업 연계를 위한 교육생별 진로설계 및 상담	2시간 (회당 1시간 교육생별 3회이상)
총 시수		40시간 내외

3. 이주배경청소년 특성과 사업의 필요성

1) 이주배경청소년 특성

이상으로 본재단에서 진행하는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교육기회에의 접근, 교육 과정 등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그 어려움은 신분상의 불안과 언어와 문화적 차이, 경제적 취약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문화적 어려움이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다 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언어에 의한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입국초기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일상적인 듣기나 말하기뿐 아니라 학습을 위한 읽기와 쓰기 등 한국어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교육 및 진로문제의 어려움이다. 이주과정에서 학업 공백과 학습내용의 차이가 있어 학교진입 및 학교생활 유지가 어려우며, 학령기를 벗어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인 경우 대부분 서비스직이나 생산직 등 시간제 또는 비정규직에 재직하므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심리·정서적 적응 문제이다. 대부분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온 경우이다. 이주로 인해 생활환경의 변화를 겪게

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심리적인 고독감과 외로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고 방치되었던 경우가 많아, 가정 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하고 가족 내 갈등을 겪기도 한다.

넷째,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어려움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외모, 문화적 차이에 의해 또래 집단에서의 차별과 따돌림 등 학교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청소년을 경험한 학교는 입학울 꺼리거나 입학 자체가 거부되는 사례도 있다. 취업의 경우에도 한국어가 서툰 문화차이로 인해 대우나 보상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명시적으로 입학이 허용되었다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방치되거나 별다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 사업의 강점 및 필요성

본 재단에서 진행되는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들에 대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국시기, 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이라는 것이다. 한국사회 입국초기 및 연령과 수준을 고려하여 한국어 분반수업을 진행하는 레인보우스쿨에서는 집중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해 주 5일 4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상자 특성에 맞춘 한국어 교육, 직업기술교육 제공으로 진로능력 향상 및 사회진출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정체성, 가족 및 또래관계에서 파생되는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전문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교육, 진로교육, 직업훈련, 사례관리 등 청소년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대상의 특화 및 전문성이 특징이다. 공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진입이 불가능한 청소년, 공교육 진입을 준비하는 학교밖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사회 정착기간, 어학능력, 연령, 동일 문화권 등을 세분화 하여 필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여 출신과 신분, 체류조건 등과 상관없이 교육 및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체성 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인식에 대한 환경조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4. 과제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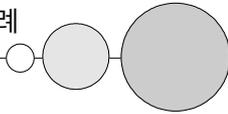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사회 적응은 가정에서의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접근해야하는 문제이다. 본 재단과 같이 이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정책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 안에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인 경우에는 학교생활에서 학습 및 사회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기 위해서 교사의 이해 및 일반 학생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학생들의 다양성 수용을 위한 교육 및 교사의 인식 및 지원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제도적으로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교육 기회를 제대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학교 교육과정 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 모색,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대인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밖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령기 이후 후기청소년들인 경우에는 이들이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신분이 안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하는지,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를 향후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필요하다. 체류형태가 불안정하거나 여건상 공교육 진입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중도탈락 사례들은 향후 사회문제화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권 밖 이주배경청소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언어와 학력 차별 등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교육적) 소외 가능성이 크고 가족의 지지체계가 미약한 상황에서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발달특성상 청소년기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에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와 교육의 중단 등으로 뚜렷한 목표 부재와 자기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초기에 언어와 정서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후기 청소년기는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데, 학교 진학이 어려운 경우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국비지원 또는 사설 직업 기술학원 등) 교육이나 공신력 있는 자격증 과정 등은 미비한 상황이다. 체류신분이나 국적취득 여부, 언어 등의 불안정으로 평균 취업률은 20%에 해당하며 그마저도 아르바이트 형식의 단기형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진로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체험해보는 것은 직업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중요한 시기이며 진로를 탐색하고 정보와 이해를 통해 동기부여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개발이다. 국제적 교류가 활발한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중언어 구사와 타문화 이해능력을 활용한 인적자원 개발 및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심과 지원은 이들의 잠재역량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한국사회의 다문화, 글로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2016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이주민 자녀세대와 다문화사회의 과제”

NGO의 다문화 통합교육 우수사례
- 다다리 배움터 사업을 중심으로 -

서종남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센터장)



NGO의 다문화 통합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달라서 더 아름다운 『다(多)다리배움터』의 꿈

서 종 남

문학박사/교육학박사/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센터장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다(多)다리배움터』는 2014년 개교 이래, 매주 토요일,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소외계층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 역사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청소년·일반소외계층청소년이 상호 교류하는 통합 예·체능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정서함양에 기여한다.

사업명	다(多)다리 배움터
추진배경 및 필요성	<p>추진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하여 상호 소통하는 다리역할의 배움터 - 모든 청소년이 다양한 교육 및 체험을 통하여 서로 조화되고 나날이 성장하는 배움터 <p>필요성:</p> <p>오늘날 청소년이 학교교육에서 받기 어려운 다양한 다문화교육과 역사 바로알기, 창의적 글쓰기 등으로 학력 증진과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 향상이 요구된다.</p>
사업기간	2014년 ~ 현재

1. 과목별 교육내용

교시	시간	과목 구성	교육장소
1	10:00 ~ 10:40	체육교육 - 배구	대여 체육관
2	10:45 ~ 11:25	(대여 체육관으로 집합하여 교육 실시)	
	11:25 ~ 13:00	학교로 이동 & 점심	다다리배움터 & 현장
3	13:00 ~ 13:40	언어교육 - 국어(독해/논술/문학)	
4	13:45 ~ 14:25	언어교육 - 영어(스토리텔링)	
5	14:30 ~ 15:10	다문화교육 - 세계문화교육 및 체험	
6	15:15 ~ 15:55	역사교육 - 역사 바로알기 & 역사 현장학습	
	15:55 ~ 16:00	질의응답 / 총정리	

2. 한글백일장 진행

- 목적 : 학생들의 감수성을 기르고 학업 및 참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학업에 정진토록 함
- 장소 : 만석공원 내
- 행사 일정(안) : 운문, 산문 각 부문 1인 또는 장원 1인, 차상 2인, 차하 3인 시상

시 간	행사 순서	연사 및 참여자	비고
10:00-10:20	백일장 주제 발표	전교생, 심사위원, 인솔자	
10:20-10:30	필기구 및 용지 배부		
10:30-11:30	글쓰기		
11:30-11:50	심사 및 심사평, 발표		
11:50-12:00	시상식		

3. 종강 문화콘서트 개최

- 목적 : 학생 주도 활동을 콘서트를 통해 나눔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의 성과와 성취를 느끼게 하고자 함
- 장소 : 소극장

4. '한국 역사 속으로' 현장체험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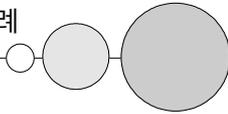
다문화 학생, 일반 저소득층 청소년 20명, 참여를 통한 통합 교육 및 문화교류 증진

1)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참여대상 : 다다리배움터 다문화학생 20명(기존 및 새 입학생 예정)

2) 학습 계획(안)

NO	체험지	체험장소	추가 체험 내용
1	선사시대부터 구한말까지 - 강회에서 만나는 역사의 현장	인천 강화군	
2	정조의 개혁정치 현장 - 마재(다산 정약용 생가)	경기도 남양주	
3	조선시대의 궁 - 경희궁	서울시	한국전통문화체험(1회)
4	조선시대의 궁 - 경운궁/인사동	서울시	한국전통문화체험(2회)
5	정조의 꿈을 품은 성 - 수원 화성과 박물관 등	경기도 수원시	



3) 한국역사 속으로 발표회 개최

- 목적 : 역사의식 고취
- 일시 : 학기 중
- 장소 : 다다리배움터
- 발표회 일정(안)

시 간	행사 순서	연사 및 참여자	비고
13:00-13:10	발표회 개회	역사 교사 및 다다리배움터 재학생	
13:10-13:20	1조발표(5명)	역사 교사 및 다다리배움터 재학생	
13:20-13:30	2조발표(5명)	역사 교사 및 다다리배움터 재학생	
13:30-13:40	3조발표(5명)	역사 교사 및 다다리배움터 재학생	
13:40-13:50	4조발표(5명)	역사 교사 및 다다리배움터 재학생	
13:50-14:20	평가회	역사 교사 및 다다리배움터 재학생	

2016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이주민 자녀세대와 다문화사회의 과제”

토론 1

정주영 (평택대학교 교수)

‘중단연구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정 주 영

평택대학교 교수

현재 전 세계는 세계화로 인해 자본, 기술 및 인력의 이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제결혼 및 이민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문화 가족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행정자치부(2015)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1,741,919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51,327,916명)의 3.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이주민이 5% 이내의 초보적 이민정책 수준으로 사회적 개방 수준이 미비하여 아직 갈등이 없고 사회적 비용 지출도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국인주민이 2009년 1,106,884명이었던 것으로 보아 짧은 기간에 다문화 가족의 수가 급증했으며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이주민 유입의 본격화 단계로 진입할 것이며 제도적 준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다문화가정 자녀수 107,689명에 비해 2015년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총 207,693명으로 거의 2배로 증가 했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수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09년 26,015명에서 2015년에는 82,536명으로 거의 4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이거나,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로서 인종적·문화적 갈등을 겪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문제이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향후 다문화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집단 내 다양성을 밝히고,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발달상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고자 한 점에서 매우 필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변인에서 일반청소년집단이 다문화청소년집단에 비해 평균이 높다는 결과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많은 다문화 청소년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집단 내에서도 각 집단의 배경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며, 발달 정도나 적응 수준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는 포괄적이고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정책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문화청소년 연구가 좀 더 실제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국내출생,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노동자자녀 배경에 따라 발달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제시하였으나 각 집단별 상세한 요인 분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집단별 특성에 맞추어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의 소득수준별로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발달수준을 비교하였는데, 가정의 소득과 함께, 부모의 교육, 직업이 포함된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Status) 배경에 따라 다문화집단 내에서의 결과는 더 다양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소득수준이 '상'인 집단의 경우 대부분의 평균에서 다문화패널집단이 일반패널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수용성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서 연구된 많은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정체성/문화적응 정도와 학업성취도에 관한 연구에서 문화적응이 높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도나 학업성취도가 높고 사회경제적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는 사춘기에 접어드는 청소년의 시기에 다문화학생들의 문화 정체성과 발달정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6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이주민 자녀세대와 다문화사회의 과제”

토론 2

강영배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한국태생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진로 형성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에 대한 토론문

강 영 배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성장단계를 인생의 발달단계에 비유하면 청소년기 또는 청년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상당수의 다문화가정은 어머니가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 아동기의 주요 발달과제가 학교생활 적응이라면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제는 진로선택 또는 진로결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al Economic Status), 문화 및 인적 자본, 청소년들의 초기사회화과정, 자원에 대한 접근성, 자신의 진로에 대한 포부수준, 진로관련접근성, 사회적 관계망 등이 그들의 진로발달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규명은 학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 선정의 문제이다. 연구자는 사례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대상인 ‘순지’와 ‘아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왜,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가운데 ‘순지’의 경우는 일반적인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도 일본에서 통일교를 통해 결혼한 가정을 자주 접한 경험이 있지만, 이들의 경우 본인들만의 독특한 종교적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이나 가정의 형성과정이 노출되는 것을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러한 점에서 질적 연구(사례 연구)가 일반화과정을 지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지’의 사례가 다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진로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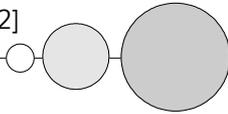
둘째, ‘순지’의 사례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만이 경험하는 진로발달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지’의 경우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지만, 원래는 제과제빵을 전공하고 싶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이후에는 보석감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결국은 바리스타 학원

을 다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있어 흥미, 적성, 가치관, 경험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 요소가 어떠한 화학적 작용의 과정을 걸쳐 진로결정이라는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순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크롬볼츠(Krumboltz)도 주장하듯이, 진로발달과정 자체가 그다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할 순 없지만, 이들이 성과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경험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상호 결합하여 진로결정이라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몇 년 후 '순지'가 무엇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어떠한 시각에서 삶을 조망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진로에서 직업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순지'와 '아라'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지에 대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셋째, '아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어머니)의 성취욕구가 자녀의 진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의 경험에서도 조선족 여성(어머니)의 경우 자신들의 성취욕구가 자녀들에게 투영되는 사례가 많은데, '아라'가 그러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양육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아라'의 어머니는 능력적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필자는 '아라' 어머니의 모습에서 산업화시대의 한국의 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 보인다.

반대로, '순지'의 어머니는 '아라'의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순지'의 성공, 사회적 지위 획득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순지의 어머니는 '순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면서 '타고난 운명에 따라' '평범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양육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순지의 어머니의 모습은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 두 사례를 통해 느낀 점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주양육자라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자녀의 진로발달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지역적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지역적 특성에 기반을 둔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의 질과 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공동체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퍼트넘(Putnam)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에서 개인이 어디서, 누구와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는 그의 성장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두 사례가 내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에 대한 문제인데, 그라노베타(Granovetter)는 청소년들의 진로에 있어 공식적 관계망보다 비공식적 관계망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비공식적 관계망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친척'이다. 이 둘 두 사례에서 '친척'과 같은 비공식 관계망이 그들의 진로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이 둘 두 사례에서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와 '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의미있는 타자'의 경우, 누군가와의 만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 누군가의 모습, 말 또는 태도 등이 진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은데, 이 둘 두 사례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역적 특성 또는 가정환경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있어 진로에 대한 고민의 주요 상담자는 친구이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때로는 지지와 승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 두 사례에서는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 교육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최근 이혼율 및 재혼가정의 증가 등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낯선 땅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정든 고향을 떠나 생면부지(生面不知)의 땅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성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일 일진데, 청소년에게는 말해 무얼 하겠는가? 그밖에도 그들은 언어문화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적응 문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어려움 등과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한국사회를 살아가야 한다. 결코 쉽지 않는 과제들이다. 그러하기에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적응 과정에 있어 한국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심리정서상의 문제도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전문가의 확충이 중요할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국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그들이 수용, 수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적응 초기단계에 상담프로그램의 확충과 전문가의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 상담전문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과의 연계 등에 대한 실태 및 효과에 대해 알고 싶다.

둘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레인보우스쿨, 무지개잡아라, 내일을잡아라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한계 또한 명확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초적인 직업훈련 등은 그들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이지 최대한이 아니다. 이들 프로그램이 최소한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 또한 최소한으로 설계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한국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그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공론화하

여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쉽지 않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반 청소년, 교사 또는 청소년지도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교육과 중도입국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이웃간의 사회관계망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동정어린 시선이 아닌 따뜻한 눈길과 고민을 공유할 친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친구가 없이 그들끼리 놀고 그들끼리 살아가는 것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친구사귀기, 이웃되어주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회관계망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점(point)이 아니라 선(line)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다문화사회는 미래적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넷째, 레인보우스쿨, 진로지원, 직업훈련,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방향성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 따르면,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경험한 문제점과 성과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 아울러 향후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지원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고 싶다.

2016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이주민 자녀세대와 다문화사회의 과제”

토론 3

홍영균 (사회적협동조합 미래환경 이사장)
(전)홍익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다수와 소수의 공존을 위한 다문화사회의 과제’ 토론문

홍영균

사회적협동조합 미래환경 이사장

(전)홍익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시작하며

오늘 학술대회는 다문화가족 차원을 넘어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다문화가족정책**에서 **다문화사회정책**으로 한결 성숙한 논의가 시작되는 뜻 깊은 자리라 생각한다. 다문화가족정책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이들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교육문화생활 등 가족 차원의 정책이라면 다문화사회정책은 이를 포함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들이 소속된 지역 공동체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한국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한 동질감이 강한 민족이다.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유학생 등 소수집단에 대한 몰이해(편견과 멸시)는 최근 들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기에는 아직 개선할 사항이 너무도 많다. 이는 곧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의 인식 및 문제 현황이기도 하다. 지난 10년간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정책은 끊임없이 제공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문화 사회는 외국인 거주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가 넘는 사회를 지칭한다. 즉, 인구 2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라는 사회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국인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 캐나다 등은 국가 성립시부터 여러 민족이 다양한 문화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는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민족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보다 복잡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일부 사회학자들은 다문화 사회라는 용어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들은 다문화 사회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어떤 특정한 문화가 주류를 형성하

는 단일 문화 사회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다양한 문화 집단이 공존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므로 오늘날 특별히 더 강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00만 외국인 진입을 필두로 우리사회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⁷⁾이 전개되고 있다.

발표 요약 및 토의

1. 문제제기

발표자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공존과 통합이 중요한 이슈라는 문제제기로 본 발표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가 “소수자인 이주민 자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단일 방향성의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본 발표에서는 “다수인 선주민 자녀세대를 위한 과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와 소수의 공존이란 사회통합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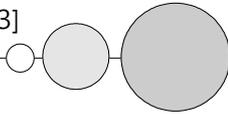
2. 선행연구 및 정책현황

제 2차 다문화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다문화이해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2015년 주요 추진성과 및 평가 중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예방**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인종, 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등임을 소개하였다. 학교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해서는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2016년 시행계획에 따른 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 현황 <표7>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주민과 선주민 학생 간 상호 이해 교육 강화의 추진실적은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기존의 학교교육과 차별성이 없을뿐 아니라 2016년 추진계획에는 전국 전체 학교수 20,835교에서 다문화중점학교 30개 추가(기존 150교에서 180교)로 되어있다. 우리사회가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다문화중점학교와 같은 수준의 다문화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국립민속박물관에 위탁하더라도 쌍방향 교류·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국립민속박물관 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외국전문박물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결과

7)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성과 사회적 갈등, 황갑진, 2015.10, 사회과교육연구 제22권 제3호



1) 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발표자는 실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다문화중점학교 여부?) 사례를 발표하였다. 본 사례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어떤 정도 수준인지 현실을 알게 되었다. 발표문에서 조금 불명확한 점은 다문화 이해교육을 교육하는 교사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하는 점이다. 또한 다문화중점학교와 일반 학교의 다문화 이해교육 내용이 비교가 되었으면 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2) NGO '문턱을 넘어라' 프로그램

일선 NGO 단체에서 1년간 운영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다양한 구성원들(이주민 활동가, 예술가 등)이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생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일방적인 '다문화 이해교육'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전체의 어느 정도 인지 그리고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3) 독일의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외국 사례로는 오랜 인종차별주의의 영향을 경험한 독일을 선정하였다. 독일의 프로그램은 민간단체 주도로서 주정부, 연방정부, 유럽연합과 서로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소개하였다.

독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최대 특징은 **자발적인 청소년 운동**을 고취한다는 점일 것이다.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여행을 격려하기 위한 유스호스텔, 청소년 스스로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자치적인 청소년의회 등 청소년 스스로의 활동이 주도적인 조직을 독일 정부에서는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 변화와 실천 운동이 우리사회를 바꾸어 갈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한다. 독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불평등 문제에 앞장설 때 우리사회가 변화하리라 기대한다.

4. 시사점 및 결론

발표자는 이주민과 선주민의 지역사회통합은 당면한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독일

의 학교교육과 반인종주의 캠페인 등과 같이 한국도 다수 구성원의 인식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이해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보완방안으로 NGO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현대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에 관한 기본주제로 기본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고, 동성애, 극우주의, 이슬람주의, 난민, 제노포비아, 반집시주의, 성 등을 기본주제로 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관용의 담론이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를 교육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발표자는 학교 교육의 한계에 따른 NGO의 영입 및 기본학교문화의 제시 그리고 관용의 도입 등 좋은 제안을 제시하였다. 다문화에 대한 관점이 소수에서 다수로 확대되어 우리사회 특히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이 소수인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향후 **청소년세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회통합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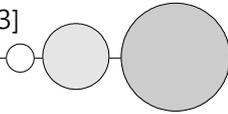
이 자리가 발표문에 대한 단순 토의의 장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현행 다문화정책에 관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2000년대 이후이다. 당시 다양한 이주민 통합정책이 다문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며 2003년 고용허가제 제정, 2004년 국적법 개정,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정지원법 제정 등이 차례로 이뤄졌다. 특히, 2006년 4월 국정과제회의(노무현 대통령 주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이주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정책이 수립되며 특별히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주도 다문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자국민 중심의 동화정책이라는 점이다. 본래 **다문화 정책**은 사회 내 다양한 문화를 **주류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소수 집단의 차이와 자율성을 존중하여 그 차이가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다수자의 소수 문화에 대한 이해 및 동감을 통해 가능하다. 지금까지 다문화 정책은 우리에게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은 한국의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생각만 뿌리깊게 만들었다. 한국인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⁸⁾을 고려해 볼 때, 정부 및 전문가들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보장하는 적극적

8) 달헌 대한민국: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김지윤외, 이슈브리프 2014.02, 아산정책연구원



인 다문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이주민이 우리 사회로 편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진 사회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2016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이주민 자녀세대와 다문화사회의 과제”

부 록

평택대 다문화가족센터 소개

☺ 설립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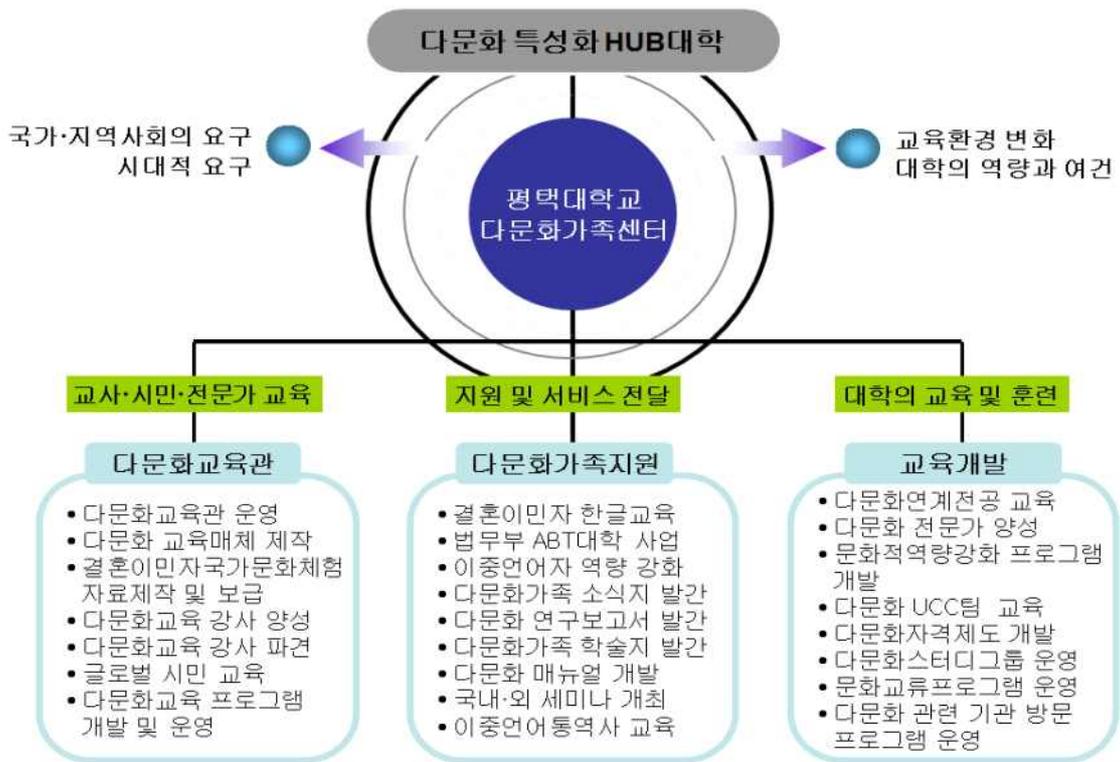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 2006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인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9년도 2월에 3차년도 사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종료하였으며 다문화가족복지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문화적 충돌이나 사회적 차별 없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한국 사회에 정착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사업과 아울러 다문화인식개선교육사업,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디딤돌스쿨, 다문화·탈북가정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특성화 HUB대학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주요사업 영역



- 중도입국청소년 위한 디딤돌스쿨
-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교육
- 다문화 탈북가정학생 멘토링
- 다문화인식개선교육
- 다문화 관련 연구



[그림 1]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사업

☺ 조직 및 기능

(1) 조직



[그림 2]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조직도

(2) 구성인원

성 명	직책.직위	담당업무
유진이	소장/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다문화가족센터 총괄
송원일	연구원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팀원
최보람	연구원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팀원
박종선	연구원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팀원
김소영	디딤돌스쿨 교사	디딤돌스쿨 한국어교사
송미애	디딤돌스쿨 교사	디딤돌스쿨 한국어교사
황안드레이	디딤돌스쿨 교사	디딤돌스쿨 보조교사

☺ 센터 안내 - 다문화가족센터



• 센터 전경



• 센터 입구



• 다문화 교육관 전체 평면도



• 다문화교육관 1층 홀



• 다문화 교육관 복도



• 다문화 교육관 <1>



• 다문화 교육관 <2>



• 다문화 교육관 <3>



• 다문화 교육관<4>

다문화가족센터 연혁

- 06. 8 ○ 다문화가족센터 설립
- 06. 9 ○ Pyeongtaek International Day 2006 개최
- 06. 10 ○ 다문화가족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 다문화가족센터 / 가족사회복지학회 공동 워크숍
- 06. 11 ○ 다문화가족센터 개소기념 세미나
○ 가족사회복지학회/다문화가족센터 공동 학술대회
○ 외국인근로자지원 학술세미나 개최
- 07. 1 ○ 다문화 실습 및 제1차 전국 다문화 국내기관연수 및 해외연수
○ 다문화 전공생 해외연수(일본, 베트남, 필리핀)
- 07. 3 ○ 다문화가족센터 춘계학술대회 개최
○ 외국대사 및 전문가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
- 07. 4 ○ 다문화 교재, 매뉴얼, 교과목지침서, 「다문화가족연구」 등 학술지 20종 발간
- 07. 5 ○ 보건복지부, 2007년 「결혼이민자 생활안내」 발간
- 07. 6 ○ 평택시청,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진행
- 07. 7 ○ 교육인적자원부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제2주기 선정
- 07. 8 ○ 다문화가족센터/충남여성정책개발원/현대민족학회 학술대회.연구협약체결
- 07. 10 ○ 평택시 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축제 개최
○ 경기여성전문네트워크 정책포럼.다문화가족센터 학술세미나 개최
- 07. 11 ○ 평택시 다문화관계자 초청간담회
- 07. 12 ○ 다문화실습 초청 간담회
○ 다문화 해외연수 발대식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 다문화 UCC 제1기 교육 및 연수
- 08. 1 ○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제2차 전국 다문화 국내기관연수 및 해외연수
○ 다문화 해외기관 연수(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사 1급 특강
- 08. 2 ○ 이중언어 통역사 교육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 08. 4 ○ 다문화사회의 전문성 강화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2회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다문화가족센터/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 공동워크숍
○ 「다문화체험 및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사업」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다문화 예술심리치료 워크숍
○ 다문화 전문가 자격제도 개발 워크숍
○ 다문화 연계전공 설명회 및 동아리 축제(해단식)

- 제1차 팀티칭 시범강좌 실시
- <4Cs운동 : 아시아 영화제>
- 이중언어 통역사 프로그램 실시
- 다문화 가족상담 및 치료 연수
- 문화적 역량과 사회복지실천 워크샵
- 한국어 및 문화교육 체계화의 교과과정 위원회
- 학술지「다문화가족연구」제2집 발간
- 교내 국내 세미나
- 08. 5 ○ 평택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경기도 지원)
-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과 지역네트워크 구축전략 세미나
- 제1회 다문화가족사랑 걷기모금축제
- 08. 6 ○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콜로키움 개최
- 다문화 UCC 제2기 교육 및 연수
- 사회복지 및 다문화 실습 교육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도서관 견학
- 제1차 콜로키움 개최
- 08. 7 ○ 「국제결혼 사전정보 제공 프로그램」여성부/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 지원
- 다문화 관련 국내 인턴십 활동비 지원 프로그램
- Working volunteer 파견 프로그램 (몽골, 베트남)
- 08. 8 ○ 이중언어자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과정
- 인터그룹 다이얼로그 실시
- 다문화 관련 도서 및 영상자료를 통한 스터디 그룹
- 08. 9 ○ 「다문화와 아동보호」 제2차 콜로키움 개최
- 경기도 외국인지원 관계자 연찬회, 「다문화사회의 외국인정책과 지역 간 협력방안 모색」경기도 지원
- 다문화 사회통합 ABT(Active Brain Tower)대학 선정
- 08. 9 ○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국전통놀이 축제 한마당”
- 경기도 외국인 지원 관계자 연찬회 개최
-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제2차 콜로키움 개최
- 08. 10 ○ 1차 외국인 유학생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과 현실치료 이론과 기법 워크샵
- 제2차 팀티칭 시범강좌 실시
- 한국의 외국인 인권 워크샵
- 08. 11 ○ 목회자 및 다문화기관 실무자 워크샵
- 모자이크 바자회 개최
-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제3차 콜로키움 개최

- 다문화교육관 개관
- 다문화 해외연수 발대식 및 사전 교육
- (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의 공동 세미나
<다문화 사회와 사회복지 교육의 역할> 개최
- 08. 12 ○ 다문화 가족복지 자격연수 과정
- 다문화 국내 기관 연수 실습 워크샵
- 다문화 동계 워크샵(석.박사 과정)
- 제2차 문화적 민감성 훈련 프로그램
-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과정
- 다문화 이해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 09. 01 ○ 다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복지사 1급 대비 특강
- 다문화 기관 및 문화원 방문 프로그램
- 제3차 지정기관 집중 국내기관연수
- 09. 02 ○ 다문화가족복지실습
- 한국행정학회.아시아행정포럼.다문화가족센터 공동 학술세미나
- 09. 03 ○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경기도 소식지 *Happy family* 창간호 발간
- 09. 04 ○ 2009 평택시 외국인주민 지원 실무자 워크숍
-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과정
- 09. 05 ○ 2009 평택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 개강식
- 09. 06 ○ 이중언어자 통역사 교육 실시
- 2009 전국 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 대회 실시
- 09. 08 ○ 2009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하계 워크숍 실시
- 09. 09 ○ 다문화전문상담원 양성 과정 실시
- 한국어교실 추석음식 문화체험 실시
- 평택시 움직이는 다문화School 다문화강사 양성 및 파견사업 실시
- 09. 11 ○ 2009 다문화교육 평가 세미나
- 한국다문화가족학회 창립 학술대회 및 이주여성 책자 출판기념행사 개최
- 09. 12 ○ 경기도 교육청 다문화교육매체 제작(다문화송, 세계의 전통 음식과 놀이)
- 경기북부다문화교육센터 “알기 쉬운 다문화교재” 개발
- 10. 02 ○ 평택시 움직이는 다문화School 다문화강사 제1차 보수교육 실시
- 10. 03 ○ 2010 평택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 개강식
- 비전중학교 자원봉사 관련 협약 체결
- 10. 04 ○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행복 투게더’ 다문화강사 파견
- 평택시 움직이는 다문화School 다문화강사 제2차 보수교육 실시
- 10. 05 ○ 평택시 교육청 협약체결/ 육군군종실 협약체결

- 10. 06 ○ 다문화공연단(인형극, 연극) 양성 및 발표회
- 10. 09 ○ 지역주민 다문화한마당 축제
- 10. 10 ○ 경기도 다문화가정 부부 워크숍(2회)/ 육군 군종장교 워크숍
- 10. 11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해과정 진행/ 2급 보수과정 진행
- 10. 12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해과정
- 11. 01 ○ 법무부, 사회통합운영기관 선정 및 프로그램 실시
- 11. 02 ○ 외환은행 나눔재단,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전문상담과정 선정
- 11. 03 ○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경기도 소식지 Happy Family 3차년도 선정
- 11. 04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2급 교육
- 11. 06 ○ 외환은행 나눔재단,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전문상담 일반과정 실시
- 11. 07 ○ 다문화 가정 컴퓨터 교육(KT지원)
- 11. 08 ○ 경기도 다문화가정 부부 워크숍(2회)
- 11. 09 ○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가
○ 국가 인권 위원회, 이주인권가이드라인 구축 공동연구 참여
- 11. 10 ○ 외환은행 나눔재단,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전문상담 보수과정 개최
- 11. 11 ○ 학부모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 11. 12 ○ '중도입국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위한 아름다운 밤' 개최
○ 외환은행 나눔재단,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전문상담 고급과정 실시
- 12. 01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 전문가 2급 보수교육
- 12. 02 ○ 다문화가족센터 동계 워크샵
○ 행복을 코디하는 다문화전문상담 평가회 실시
○ 다문화상담실 운영(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 201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선정(법무부)
- 12. 03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 평택 Rainbow School 선정(여성가족부)
○ 「디딤돌스쿨」 개교/ 다문화교육 강사 양성
- 12. 04 ○ 2012 경기도 다문화가족소식지 'happy family' 발행(경기도)
- 12. 05 ○ 2012 다문화가정 부부워크숍 개최(경기도)
- 12. 06 ○ 2012 다문화·탈북학생 가정 멘토링사업 선정(교육부)
○ 다문화교육관 인식개선교육 실시(평택지역 유치원, 초, 중학교)
- 12. 07 ○ 평택 Rainbow School 여름학교 선정(여성가족부)
- 12. 08 ○ 평택 Rainbow School 하반기사업 선정(여성가족부)
- 12. 09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교육 실시(육군본부 군종실)
- 12. 10 ○ 다문화청소년 과학문화 민간활동지원사업 선정(한국과학창의재단)
- 12. 12 ○ 디딤돌스쿨 수료식 및 운영보고회
- 13. 01 ○ 다문화상담실 운영(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선정(법무부)/평택 Rainbow School 겨울학교

- 13. 03 ○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사업 선정(한국장학재단)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 평택 Rainbow School 선정(여성가족부)
- 13. 04 ○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 경기도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선정(경기도)
- 13. 05 ○ 과학문화 민간활동 지원사업(한국과학창의재단)
- 인천지방법원 '다문화가정부부캠프' 실시(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 13. 06 ○ 이주여성 '희망날개 합창단' 창단(한국여성재단)
- 13. 07 ○ 평택 Rainbow School 여름학교 운영(여성가족부)
- 13. 08 ○ 평택 Rainbow School 하반기 운영(여성가족부)
- 13. 09 ○ 중도입국청소년 진로지원프로그램 '너의꿈을 잡아라'(외환은행나눔재단)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교육 실시(육군본부 군종실)
- 13. 11 ○ 다문화사회 전문가 강사 대상 보수교육 실시(법무부)
- 13. 12 ○ 디딤돌스쿨 수료식 및 운영보고회
- 14. 01 ○ 다문화교육관 사업다문화인식개선교육 실시(평택시 초, 중학교)
- 평택 Rainbow School 겨울학교 운영(여성가족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 14. 03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선정(한국장학재단)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사업 평택 Rainbow School 선정(여성가족부)
- 14. 07 ○ 평택 Rainbow School 여름학교 운영(여성가족부)
-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양성과정 실시(법무부)
- 14. 08 ○ 평택 Rainbow School 하반기 운영(여성가족부)
- 14. 09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교육(육군본부 군종실)
- 14. 11 ○ 다문화사회전문가 강사 대상 보수교육(법무부)
- 14. 12 ○ 디딤돌스쿨 졸업식 및 운영보고회
- 무지개청소년센터 평택레인보우스쿨 최우수기관 선정(여성가족부)
- 15. 01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 평택 Rainbow School 겨울학교 운영(여성가족부)
- 15. 02 ○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 선정(법무부)
- 15. 03 ○ 디딤돌스쿨 입학식(평택 Rainbow School 여성가족부)
- 다문화교육사업 실시
- 15. 04 ○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북한이탈주민 세미나 개최
- 15. 06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선정(한국장학재단)
- 15. 08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교육 실시(육군본부 군종실)
- 다문화청소년 멘토링 캠프(경기도)
- 15. 10 ○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양성과정 시행
- "다문화와 동행" 다문화학술세미나 개최
- 16. 01 ○ 평택 Rainbow School 겨울학교 운영(여성가족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법무부)
- 16. 02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법무부)
- 16. 03 ○ 평택 Rainbow School 상반기 운영(여성가족부)
- 다문화교육사업 실시
- 16. 04 ○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평택시)
-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선정(한국장학재단)
- 2016 다문화 서포터즈 운영
- 16. 08 ○ 육군군종 다문화전문가 교육 실시(육군본부 군종실)
- 16. 09 ○ 다문화가족센터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디딤돌스쿨 소개

디딤돌스쿨

9-24세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어교육과 함께 학령기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학교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초기적응을 지원하고 청소년시기에 형성되어야 하는 사회성, 자아정체성 등의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자·덕·체를 계발하는 다문화 대안학교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기 중도에 한국에 입국하게 된 청소년

디딤돌스쿨 학생이 되고싶다면?

대 상 : 다음에 해당하는 9-24세 이주배경청소년

- 한국인과 재혼한 이주민 본국의 자녀
-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청소년기에 외국에서 지내다 입국한 청소년
- 외국인부모와 함께 입국한 청소년
-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청소년
-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청소년
- 한민족청소년(조선족·고려인)

교 육 비 : 무료(교육재료비 일부 부담)

신청방법 : 다문화가족센터(031.659.8199) 전화문의
디딤돌스쿨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신청

교내, 교외의 다문화 전문 인력을 통해 초중기 학령기의 중도입국아동 청소년들에게 한국어교육, 한국 생활문화 체험활동 등 다양한 TIP프로그램을 수준별로 실시함에 따라 한국사회 초기적응을 지원

- 기 간 : 연중
- 학 기 : 1학기(03-07월, 15주) / 여름학기(07-08월, 3주)
2학기(09-12월, 15주)/ 겨울학기(01-02월, 3주)
- 대 상 : 중도입국아동청소년 00명
- 장 소 :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다문화교육관

Teach

기초생활 한국어, 학교한국어, 한국학교 수업과목 보조

한글 그림 낱말 카드, 신체의 한글화, 음식으로 만들어보는 한글, 한국의 역사 및 사회 교육 등

Information

생활문화 (견학 및 체험활동)

서울 고궁 체험, 키자니아를 통한 진로체험, 예술활동을 통한 문화탐방, 내가 찾아가는 박물관, 직업체험활동 등

Practice

도덕성 및 사회성 함양활동

교우관계 및 대인관계 향상활동, 진로탐색 및 지도, 정체성 형성 활동, 자존중감 향상활동, 시민의식 함양활동 등

멘토링, 사후관리

학습 특기적성 교육, 생활지도 지원, 프로그램 수료자 대상 사후 관리

디딤돌스쿨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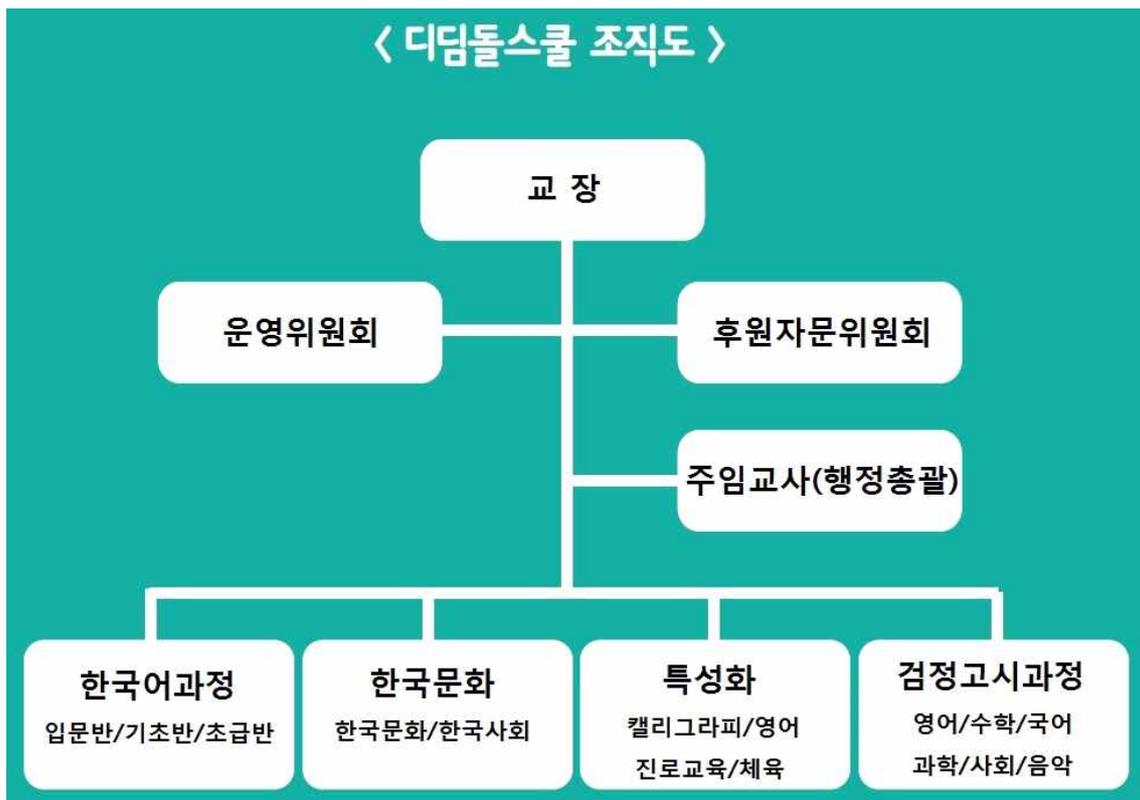
후원계자 : 국민은행 631201-04-027680 /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후원금)

시간	구분	월	화	수	목	금
09:00 - 12:00	입문반 기초반 초급반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12:00 - 13:00	점 심					
13:00 - 15:00	디딤반	캘리그래피	영어	체육	한국사회이해	진로교육
	검정고시반	음악	사회	국어/영어	수학/과학	국사

- 특별 프로그램 : 지역문화탐방, 역사문화체험, 집단상담 등

졸업 후 진로

- 초·중·고 공교육 진입
- 대학 진학
- 취업 연계



2016 다문화가족포럼 연계 학술대회
“이주민 자녀세대와 다문화사회의 과제”

2016년 9월 19일 인쇄

2016년 9월 19일 발행

발행인 : 유진이

발행처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111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전화 / 031-659-8198(代)

인쇄처 : 청설출판

전화 / 070-4681-1558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